(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5 1981년10월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October 3, 1981

OCT 8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서울서 88년 올림픽

예산$6억, 나고야 물리쳐

캘가리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한국과 캐나다의 친선무드는 점점 무르익어 이번에는 올림픽도 나누어 개최하게 되었다. 88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등 의제를 갖고 서독 휴양도시 바덴·바덴에서 30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한국의 서울을 하계올림픽, 캐나다의 캘가리를 동계올림픽장소로 결정했다. 개최확정 소식에 접한 한국올림픽위원회는 88년 9월24∼10월2일 서울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국의 서울은 총회 82명의 IOC 위원중 79명이 참가한 비밀 투표에서 88년도 하계올림픽장소로 유력시되던 일본의 나고야를 52 : 27의 압도적인 표차로 1차투표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캘거리는 이태리의 코티나담베죠와 스웨덴의 팔란과 3차투표까지 가는 열전끝에 48 : 31로 선정됐다.

투표가 끝난후 양도시시장•IOC가 정식계약기도 전에 총회는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카우보이모자가 날고, 샴페인병이터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서울이 나고야를 물리치고 개회지로 결정된 주요원인은 일본어 이미 두번이나 올림픽 개최지(44, 64)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있는것 같다.

투표가 끝난후 서울측대

것이 더욱 기쁘다고 환호했다.

이날 투표에서 인권문제등으로 서울측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소련에 대해 정몽준 한국대표는 "소련이 한국보다더 민주적 나라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의 전두환대통령은 서독에있는 한국대표들에게 축전을 보내, 노고를 치하했고, 아울러 IOC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표했다.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서울시는 성명을 발표, 정치, 인종, 종교등을 배제하는 올림픽정신을 지켜 모든 체육인을 따스히 맞이하겠다고 했다.

850만인구의 서울에서는 뉴스가 TV, 래디오방송등을 통해 전해지자 온 시민들이 올림픽 얘기로 꽃을 피웠다.

서울시는 이번 올림픽준비로 모두 22억달러를 투자, 체육시설등을 늘리고, 지하철망 확장등 도시정비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로했다.

서울시는 이미 6천달러를 스포츠시설에 투자했고, 앞으로 3억달러를 들여 더욱 확장키로 했다.

순올림픽예산은 총6억달러로 계정하나 이것은 76년 몬트리얼의 8.5억달러보다 적고, 나고야가 내놓았던 35억달러의 예산에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올림픽붐이 국내산업과 수출산업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하면 수지상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관리들은 말한다.

한편 날씨등을 고려, 9월하순으로 대회기간을 잡은 한국올림픽위원회(KOC)는 이번 올림픽에는 태권도를 새 종목으로 추가, 많은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삽입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에서는 주최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 1개의 새로운 종목 추가가 인정돼 왔다.

64년 동경올림픽에서도 일본이 유도를 삽입, 다량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에 동계올림픽으로 선정된 캘가리는 3천3백만달러를 들여 새로운 시설확장에 분주하다.

캘거리는 이번 IOC총회에서 선수들 여행경비 보조도 선언하는등 석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캘가리는 제목들이 없이 순 벌판뿐이라 부적합하나 스키코스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예정이다.

◆와—, 우리가 이겼다 : 30일 IOC총회에서 서울이 88년도 하계 올림픽장소로 선정되자 박영수 서울시장이 두손을 번쩍들어 승리의 V자를 표시하고 있다. 멀숙해진 경쟁자 일본의 나고야대표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박시장 왼쪽은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오른쪽은 박종규 IOC위원, 이원홍 한국방송공사사장. [AP전송=본보특약]

社說

민속(民俗)의 접목(接木)

— 황·백합동 추석윷놀이를 계기로

자랑다운 한국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캐나다에 심고, 피부색을 초월하여 함께 즐기면서 정서순화와 문화향상에 이바지되게 함은, 이땅에 터잡은 우리 한인 전체의 사명이라 하겠다.

그로써 민간외교관(이민자)의 긍지와 보람을 강하게 살릴 수 있으며, 모국의 장점을 실천으로 파시하는 결과도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다양(多樣)문화를 지향하는 이 나라 복합문화정책에 부합되는 장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스카보로의 도서관에서는 제2회 한·가 공동의 추석행사로 윷놀이가 실시되었다.

이는 교포 유형승씨의 창안·주선과 김창열씨의 뒷받침으로 작년에 시도되어 연례행사로 추석명절때마다 실시키로 한 것으로 주최를 도서관 자체가 하고, 한인들과 캐네디안들이 혼합일심이 되어 한국의 명절정취에 취하면서 뜻깊은 풍습을 맛들이는 문화교류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토론토」9월23일자 참조)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 한다. 이를 재치있게 풀이한 이가 있어 "한·가를 위한"친화의 날이라 했다. 이번 스카보로의 추석놀이야말로 그런 뜻에서 본보기적 "한가위"였다 하겠다.

이같은 합동 명절행사가 비단 한곳에서만 소규모로 실시될 것이 아니라, 토론토 곳곳에서, 점차로 타지방에도 널리 보급되어 캐나다 각지역에서 실시된다면 우리로서는 자랑다운 문화민족의 후예로서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으며, 또한 이 나라 복합문화정책면에서도 얼마나 실효(實效)있는 쾌사이겠는가!

이같은 관점에 우리는 한인연합회의 "한인의 날"행사에 기대가 컸었는데, 불행히도 첫해부터 유실(流失)시켜버려 실망이 크다.

작년 이어 올해 추석놀이를 실시한 스카보로도서관 행사의 규모와 행사종목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소개 영화와 한국고전무용 한둘, 무지개떡 시식과 윷놀이의 극히 단조로운 소규모행사였음을 지적하겠다.

앞으로의 추석 행사에는 한국민속화·고궁·고적사진등의 전시와, 윷놀이 해설도 전시등 자상한 배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규모가 커질 때, 강강수월래 합동원무(圓舞)·농악춤·그네뛰기·씨름대회·활쏘기대회·한국연 날리기·「양주산대놀이」·「봉산탈춤」·「북청 사자놀이」등의 탈춤등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 나라 다종(多種)민족들에게 널리, 그리고 깊이 보급 침투시켜 문화면에서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다운 것이 해외진출에 큰 추진력이 되게 한다면 그 얼마나 높고 깊은 긍지가 되겠는가!

전체 캐나다의 한인교포들은 이 점 각별히 마음새겨 우리 민속의 이식(移植)을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힘 모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랑다운 문화민족의 후예답게….

한국이민문 넓어질듯

트루도, "한국이민 많이 받겠다"

(서울 이태은 본보 특파원발) 한국방문중인 트루도 수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캐나다 거주 약 4만명의 한인들에 대해 언급, "한국인의 더 많은 이민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제,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특색인 포인트·시스템(점수제)을 풀이했다(관련기사 9.10면)

「국군의 날」행사 여의도 광장서

(서울1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1일"우리가 강할때에만 강력한 우방을 갖는다. 우리가 약하면 부강한 나라나 약소국 모두가 우리를 저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광장에서열린 제33회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힌 전대통령은"

"북한은 이성에 눈멀고 옳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67개국에서 총2백명이 국방장관및 군지도자가 초청됐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 부담)
ASKING :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 922-3111 R) 439-8885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OCT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교육수준·직업만족도 정비례 (2)

—갤럽 여론조사 결과

노스욕의 한 젊은 부부는 그들이 사고 싶어하는 집을 5년동안이나 미루어야 했다. 그들의 수입이 느는 것보다 집값과 모기지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이다.

수입이 질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못 따라간다고 느끼는 사람은 비단 이 부부만이 아니다.

토론토 시민 414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토론토니안」들은 그들의 수입이 기대보다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중 39%가 일년에 3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편한 생활을 할 수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21%만이 그만한 액수를 번다.

기대도는 젊은 대학졸업자 중에서 가장 높다. 18~24세의 그룹에서 대학교육을 못받은 사람들의 3%가 연5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대학졸업자는 19%에 이른다.

최근 연방정부 추산에 의하면 79년도에 3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전 인구의 3%에 불과하다.

빅토리아팍과 에글링톤의 2베드룸 아파트에 사는 부부는 월48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한다. 이만한 액수로 그들이 수년전 집구입을 했었더라면 충분히 모기지를 부어나갈 수 있을만한 금액이다.

연수입 4만달러인 이 커플은 자기들 수입으로 웬만한 집을 사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한편 토론토니안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직업에 만족한다. 5사람중 4 명은 자기 직업에 "아주" 만족하거나 "보통" 이상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봉급보다 매력적인 직업을 더욱 값있게 본다. 그러나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전 회사 사장이며 현재 경영상담을 하는 50대의 한 남자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10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국 켐브릿지대학 출신인 그는 27년전 캐나다에 왔을 때는 기회가 많았고 실수입이 늘어가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당시 소형주택은 4½%모기지로 1만달러에 팔렸다. 지금 그와같은 주택은 20% 모기지에 12만달러를 홋가하고 있다.

토론토니안들의 직업에 대한 소감을 조사하기위해 10가지 조항이 선정되어 그들이 선택한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했다(도표 참조).

갤럽여론조사는 18~24세 그룹의 사람들중 대학교육 유무에 따라 직업선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중 82%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은 62%가 그렇게 생각한다.

□의미있는 기여의 가능성을 66%의 대학교육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은 44%만 중요시한다.

토론토니안은 성공에 가장 큰 장애로 교육을 꼽는다.

응답자중 45%가 그들의 교육수준이 성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다음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타도시 전출을 꺼려함(28%)이다.

한편 22%의 응답자는 주말, 오우버타임 밤에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성공의 장애라고 말한다.

모든 연령층을 망라하여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회 : 우리는 가정과 일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

직업선택

무엇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Total	18-24 Univ	18-24 non-univ	25-39 Univ	25-39 non-univ	40-64 Univ	40-64 non-univ
진취성	63%	82	62	62	57	67	63
협조적분위기	55	55	52	51	54	58	57
자기표현의 기회	52	71	45	40	56	62	46
의미있는 기여의 가능성	50	66	44	42	49	57	52
돈	49	50	55	40	57	37	50
승진의 기회	46	49	61	38	44	43	42
취미활동시간	39	51	45	26	42	40	37
가족	36	23	41	24	41	39	40
자극	35	40	41	28	31	42	33
명성	20	21	34	14	25	15	13

성공의 장애물

무엇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가?

	Total	18-24 Univ	18-24 Non-univ	25-39 Univ	25-39 Non-univ	40-64 Univ	40-64 Non-univ
교육배경	45%	45	52	31	61	37	41
타지역전출회피	28	22	37	17	32	20	28
권위에 대한 태도	25	34	28	15	33	15	29
시간외 일 회피	22	14	26	8	30	28	21
불만	19	31	16	23	27	13	15
성	19	23	22	20	21	14	15
민족배경	12	3	17	14	12	11	11
가족배경	8	3	12	5	12	—	13
정치적견해	7	16	11	7	6	3	8
종교	5	4	9	4	5	—	6

범법자 3천여명 재판없이 억류돼

한국에는 3천여명의 깡패, 강도등 순화교육 대상자들이 재판없이 정부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토론토에서 발행되는〈그로브·앤·메일〉지가 브라이언·존슨 서울특파원의 기사로 보도했다.

서울발 기사로 29일자에 보도된 관계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루도를 수행한 존슨특파원은 3천명 이상이란 숫자는 일본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 의해처음으로 밝혀진후 서울에서 관리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사회정화법에 묶여있는 3,228명중 정치범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윤 공보관은"이들은 모두 강도, 깡패등 일반범죄자들이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소식통은 약 300~500명의 정치범이 교도소나 순화교육대 또는 사택연금으로 묶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치범 중에는 80년부터 내란죄로 복역중인 김대중씨도 포함돼 있다.

또하나의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씨는 아직도 자택에 연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암네스티(사면)위원회 본부의 인권관계자들은 한국의 정치범 수를 500명이상으로 추정하나 한국의교회 관계자들은 320명정도라고 밝혔다.

도쿄의 한국대사관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약 15,000명의 범법자들이 사회정화법에 의해 순화교육을 받았다.

사회정화법은 판사, 검사, 법률가들로 구성된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해 초안되어 80년12월 계엄령 아래서통과됐으며, 이 법에의한 대상자들은 재판없이 구금될 수 있다.

관리들이나 민간인 소식통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분 일반범죄자들이라고 시인하지만 왜 이들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없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범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인 소식통과 정부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정부는 김대중씨 조차도 범법자이지·정치범이 아니라고 하나 그의형량은 세계적인 여론에 따라 전대통령의 방미직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면됐다.

한편 주한캐나다 대사관 윌리암·바우어씨는 28일 "우리는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인권문제에 관해 말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을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바우어씨는 트루도 수상을 수행한 기자들에게 말하면서"우리는 한국정치가들에게 자유시장 정책, 공평한 이윤분배, 사회정의의 실현등을 한국정부에 요망해 왔다"고 덧붙였다.

새 임원진 갖춰

베타와이즈멘즈클럽 모임

토론토한인베타와이즈멘즈클럽(회장 이석현)은 지난 29일밤 한인Y회관(15 Robina Ave)에서 경제문제 강연을 곁들인 월례회를 가졌다.

지난달 임원개선후 첫모임인 홍승규 부회장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황용현씨(황용현 부동산대표)의 「Credit Buying 크레딧·카드에의한 매입」강연에 이어 월례회에 들어갔다.

이석현 회장의 회무처리 보고로, 아래 새로운 임원진 소개및 내년 세계대회 준비건, 회원배가운동 제의, 자선음악회 개최건등과 지난 한달동안의 움직임에대한 보고가 있었다.

안건처리로 이영현, 박대현씨를 만장일치로 회원영입, 10월 모임에서 차터(회원선서)를 가지기로 했으며, 유재량씨등 서부지방교포음악인들 초청 자선음악회 개최건은 시기관계등을 참작, 내년봄으로 미루고, 그 준비위원으로 회장단=이석현·홍승규·강대길사무장·안병원(Y합창단지휘자)·이영현(Y합창단 이사장)외 5씨를 선출했다.

◇임원

회장 : 이석현

차기회장 : 홍승규

사무장 : 강대길

재무 : 홍사렴

◇봉사위원회

총무 : 김창열

직전회장 : 김순창

봉사 : 전태균

프로그램 : 강공선

회원부 : 이영일

회보 : 조한철

형제애 기금 : 안병원

여행 : 한상훈

장학기금 : 김광웅

모금 : 김창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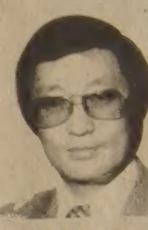
명예회원 : 존·갤릴리

◇세계대회 준비위

김순창·한상훈·김창범 그밖에 알건으로 10월 23~25 나이아가라 지역(Park Motor Hotel)에서 열리는 온타리오—퀘벡 지구대회에 클럽대표를 파견키로 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11월21일(토)다운타운 Holiday Inn에서가지기로 결정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황용현 씨

이날 황용현씨의 강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1)크레딧·카드 이득은

1.기한내 입금하면 무이자 이용.

2. 영수증을 무료로 받고, 북·키핑이 따로 필요없음.

3. 세계 어디를가나 이용할수 있어 편리함.

4. 안전도—분실때 빨리 신고하면 $50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이 책임짐.

5. 현금 꿀수 있으나 일쑤이자 붙음.

6. 분납할수 있음.

(2)모기지(부동산을 저당잡고 돈 빌려줌)

1. 부동산 소유권은 소유주에 있으나빚 안갚을때채권주 측으로 소유권 넘어감.

2. 모기지의 장점—채권축 안전, 이자율 고정, 채권자 잡비안듦.

3. 모기지의 단점(채권주축 입장)—융통성 없음, 목돈주고 푼돈(매달)거둠, 인플레에대해 손해.

로타리회장 방한 한국지부활동치하

(서울1일=연합)한국을 방문중인 국제로타리 클럽 스탠리·맥카·프레이 회장은 30일 그의 한국방문은 한국로타리회원들의 자목할만한 일의 성과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로타리 클럽은 지역사회 발전을위한 청소년프로그램 추진과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모집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로타리를 통한 세계이해와 평화"를 모토로 하는 로타리클럽은 전세계에 1백만명의 회원을 두고, 사상적 대립없이 세계를이해하고, 국제적 복리증진을위해 일한다.

심리상담 개업

심리학자 김보경씨

심리학자 김보경씨가 토론토에 심리학 상담실을차렸다.

교육진단, 스트레스 예방, 행동심리 치료등 개인상담을통해 치료해 나가는 이 상담소는 토론토 600 Sherbourne St. # 406에 위치하며, 전화예약에 의해개인적으로·토요일에 한해상담치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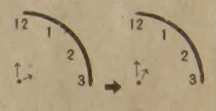
연락전화(705)549—3454. 토론토상담실 : 923—3336

섬머타임 해제

10월25일 새벽2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섬머타임이 오는 25일 새벽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따라 시각은 1 시간씩 뒤로 돌아가 새벽2시는 새벽1시가 된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작가들 이미 토론토 도착 —

현대 한국작가 초대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석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 1회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 특설화랑
123 QUEEN ST. W.

시 간: 10월8일(목), 9일(금): 6:00P.M. ~9:30P.M.
〃 10일(토), 11일(일): 2:00P.M. ~9:30P.M.
〃 12일(월), 13일(화): 6:00P.M. ~9:30P.M.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선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현대 美國良書 1백권

[편집자주 : 미국의 양서는 그대로 캐나다의 양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북미 영어문화권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소개한다.]

LA 타임스는 최근에 학자들과 일반독자들의 도움을 얻어 현대 미국의 양서 1백권을 선정한 다음 출판연도순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이 일을 떠맡았던 사람은 타임스지 서평담당자 케네스·컨스텐.

컨스텐은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현대」라는 시간적 제한과 발을 붙히고 있는 「미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1백권의 선정지침으로 삼았다.

1백권의 현대미국양서 목록의 첫머리를 장식한 책은 현대미국 성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벤자민·스포크 박사의 「육아법」.

선택된 양서의 출판연대는 1940년대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에 걸쳐 있는데 이중에서 1960년대는 작품생산이 가장 많았던 연대로 꼽히고있다.

타임스지가 선정한 1백권의 양서는 1946년~1981년 사이에 출판된 책들로서 아직 절반이 안되었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책들이다.

1백권의 선정기준은 현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문학, 예술, 지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거나 인기가 가장 높은 책들이다. 또한 작가 1인당 1권으로 제한시켜 수량을 줄였다.

현대미국양서 1백권의 목록에 포함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1. BABY & CHILD CARE(육아법) 벤자민·스포크(1946년)
2. THE NEW SOCIETY:THE ANATOMY OF THE INDUSTRIAL ORDER(새로운 사회:산업질서의 해부). 피터·드러커(1950년)
3. THE LONELY CROWD: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고독한 군중:변화하는 미국인들의 특성연구). 데이비드·리스만외 공저자(1950년)
4. THE CATCHER IN THE RYE(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1951년)
5. INVISIBLE MAN(투명인간) 렐프·엘리슨(1952년)
6. THE MUSTANGS(야생마). 프랭크·도비(1952년)
7. INDIAN TALES(인디언 이야기). 제이미·드엥굴로(1953년)
8. HENRY JAMES(헨리·제임스전기). 레온·에델(1953년)
9. LOLITA(롤리타). 블라디미르·나보코프(1955년)
10. PROFILES IN COURAGE(용기있는사람들). 존·F.케네디(1955년)
11. CAT ON A HOT TIN ROOF(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테네시·윌리엄스(1955년)
12. THE FAMILY OF MAN:503 PICTURES FROM 68 COUNTRIES(인간가족:68개국의 사진 503매). 편집자 에드워드·스타이첸(1955년)
13. NOTES OF A NATIVE SON(원주민아들의 수기). 제임스·볼드윈(1955년)
14. EROS AND CIVILIZATION: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에로스와 문명:프로이드에 대한 철학적 연구). 허버트·마큐스(1955년)
15. A WALK ON THE WILD SIDE(와일드 사이드의 산보). 넬슨·올그렌(1955년)
16. HOWL AND OTHER POEMS(시집). 알렌·긴스버그(1956년)
17. ON THE ROAD(노상에서). 잭·케루악(1957년)
18. THE AFFLUENT SOCIETY(풍요한 사회). 존케네스·갤브레이스(1958년)
19. THE LIVING CITY(살아있는 도시). 프랭크·라이트(1958년)
20. THE NAKED LUNCH(소설). 윌리엄·버로스(1959년)
21. LIFE STUDIES(생명연구). 로버트·로웰(1959년)
22. MALCOLM(맬콤). 제임스·퍼디(1959년).
23. A PIMA REMEMBERS(피마인의 회고). 조지·웨브(1959년)
24. GROWING UP ABSURD:PROBLEMS OF YOUTH IN THE ORGANIZED SYSTEM(불합리한 성장:조직화된 제도속의 청소년 문제). 폴·굳맨(1960년)
25. THE MAXIMUS POEMS(시집) 찰스·올슨(1960년)
2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웹브터 영사전 제3판). 메리암회사(1961년)
존·업다이크(1968년)
27. THE MAKING OF THE PRESIDENT 1960(1960년 대통령선거). 테오도어·화이트(1961년)
28. STRANGER IN A STRANGE LAND(낯선 땅의 낯선 사람). 로버트·하인라인(1961년)
29. CATCH-22(캐치-22)조셉·헬러(1961년)
30. THE AMERICAN DREAM(미국인의 꿈). 에드워드·엘비(1961년)
31. ON BECOMING A PERSON: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인간됨에 관하여:정신치료 방법에 대한 한 정신과 의사의 견해). 칼·라저스(1961년)
32. THE IMAGE, OR WHAT HAPPENED TO THE AMERICAN DREAM(이미지 혹은 미국인의 꿈의 행방). 대니얼·부어스틴(1962년)
33. SILENT SPRING(조용한 봄). 라첼·카슨(1962년 출판)
34.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뻐꾸기둥지위로날아가다). 켄케시(1962년)
35. POTRIOTIC GORE:STUDIES IN THE LITERATURE OF THE AMERICAN CIVIL WAR(애국자들이 흘린 피:미국남북전쟁문학연구). 에드먼드·윌슨(1962년)
36. THE TENNIS COURT OATH:A BOOK OF POEMS(테니스코트의 선서:시집). 존·애쉬버리(1962년)
37. PATERSON:BOOKS 1~5(패터슨:1~5권). 윌리엄·윌리엄스(1963년)
38. THE FEMININE MYSTIQUE(여성의 신비). 베티·프리단(1963년)
39. CATS CRADLE(고양이의 요람). 커트본커트(1963년)
40. WHERE THE WILD THINGS ARE(야생생물들의 서식지). 모리스·센다크(1963년)
41. CITY OF NIGHT(밤의 도시). 존·레치(1963년)
42. HERZOG(허조그). 솔·벨로우(1964년)

1941년부터 81년까지 출판된 책이 選定대상
良書 제1호는 벤자민 스포크博士의 「育兒法」
닉슨 前대통령의 저서 「진짜戰爭」 도末席차지

43. A THOUSAND DAYS:JOHN F. KENNEDY IN THE WHITE HOUSE(1천일:백악관의 존·F·케네디). 아더·슐레징거(1965년)
44. IN COLD BLOOD: A TRUE ACCOUNT OF A MULTIPLE MURDER AND ITS CONSEQUENCES(냉혈). 트루만·캐포티(1965년)
45. THE AUTOBIOGRAPHY OF MALCOLM X(맬콤X의 자서전). 알렉스·헤일리(1965년)
46. THE DIARY OF ANAIS NIN:VOLUMES 1-7(아내스·닌의 일기:1-7권). 전터·스툴맨(1966~1980년)
47. ARIEL(영양에리얼). 실비아·플래스(1966년)
48. LOVES BODY(사랑의 육신). 저자 도만·브라운(1966년)
49. HUMAN SEXUAL RESPONSE(인간의 성적 반응). 윌리엄·매스터스외공저자(1966년)
50. GILES GOAT-BOY OR, THE REVISED NEW SYLLABUS(가일스염소-소년). 존·바스(1966년)
51. CHILDREN OF CRISIS:VOL. 1~5(위기의 어린이:1~5권). 로버트·코울스(1967~78년)
52. SOUL ON ICE(얼음위의 영혼). 엘드리지·클리버(1968년)
53. TECHNICIANS OF THE SACRED:A RANGE OF POETRIES FROM AFRICA, AMERICA, ASIA AND OCEANIA(신성한 기술자들: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대양주의 시). 제롬·로텐버그(1968년)
54. THE TEACHINGS OF DON JUAN:A YAQUI WAY OF KNOWLEDGE(돈후안의 가르침). 칼로스 카스타네다(1968년)
55. THE LICE:POEMS(시집 「이」). 윌리엄·머윈(1968년)
56. THE ELECTRIC KOOL-AID ACID TEST(전기에 의한 쿨-에이드 산성테스트). 저자 톰·울프(1968년)
57. SLOUCHING TOWARDS BETHLEHEM(베들레헴을 향하여). 존·디디온(1968년)
58. THE UNIVERSAL BASEBALL ASSOCIATION INC.(유니버설 야구협회), 로버트·쿠버(1968년)
59. THE ARMIES OF THE NIGHT:HISTORY AS A NOVEL, THE NOVEL AS HISTORY(밤의 군대:소설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소설), 노만메일러(1968년)
60. COUPLES(부부들).
61. OPERATING MANUAL FOR SPACESHIP EARTH(우주선 지구의 운전법). 벅민스터·풀러(1969년)
62. PORTNOYS COMPLAINT(포트노이의 불평). 필립·로스(1969년).
63. THE SELLING OF THE PRESIDENT, 1968년(1968년대통령선거). 조·맥기니스(1969년)
64. FUTURE SHOCK(미래의 충격). 앨빈·토플러(1970년)
65. THE NEW CENTURIONS(현대의백부장들). 조셉·웜보(1970년)
66. THE GHOST DANCE:ORIGINS OF RELIGION(유령춤:종교의 기원). 웨스턴·라바르(1970년출판)
67. THE PURSUIT OF LONELINESS:AMERICAN CULTURE AT THE BREAKING POINT(고독의 추구:극한 상황속의 미국문화). 필립·스레이트(1970년)
68. THE GENESIS OF THE FRONTIER THESIS:A STUDY IN HISTORICAL CREATIVITY(프론티어정신의 기원:역사적 창조성 연구). 알렌·빌링턴(1971년)
69. THE PENTAGON PAPERS:THE SECRET HISTORY OF THE VIETNAM WAR(국방성문서들:베트남전쟁 비밀역사). 저자 닐·쉬한외 공저자(1971년)
70. A THEORY OF JUSTICE(정의의 이론). 존·롤스(1971년)
71. BEYOND FREEDOM AND DIGNITY(자유와 존엄을 넘어서)B.F.스키너(1971년)
72. THE LAST WHOLE EARTH CATALOG:ACCESS TO TOOLS(최후의 전세계 카탈로그:도구이용방법). 스튜어트·브랜드(1971년)
73. ERECTIONS, EJACULATIONS, EXHIBITIONS AND GENERAL TALES OF ORDINARY MADNESS(일반정신이상연구). 찰스·버코우스키(1972년)
74.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광야의미국인정신). 로더릭·내쉬(1973년)
75. GRAVITYS RAINBOW(그래비티의 무지개). 토마스·핀천(1973년)
76. THE ANXIETY OF INFLUENCE:A THEORY OF POETRY(영향력의 근심:시이론). 저자 해롤드·블루움(1973년)
77. PENTIMENTO:A BOOK OF PORTRAITS(펜티멘토). 릴리언·헬만(1973년)
78. FEAR AND LOATHING:ON THE CAMPAIGN TRAIL 72(공포와 증오:1972년 선거운동). 헌터·톰슨(1973년)
79. BURR:A NOVEL(버어 전기소설). 고어·비달(1973년)
80. THE PRESIDENTIAL TRANSCRIPTS(대통령서류사본들). 버언스타인외 고정자(1974년)
81. THOMAS JEFFERSON:AN INTIMATE HISTORY(토마스·제퍼슨전기). 폰·브로디(1974년)
82. WORKING:PEOPLE TALK ABOUT WHAT THEY DO ALL DAY AND HOW THEY FEEL ABOUT WHAT THEY DO(일:사람들이 하루종일 하는 일과 이 일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스터즈·터켈(1974년)
83.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AN INQUIRY INTO VALUES(선과 오토바이 정비기술:가치연구). 로버트·퍼시그(1974년)
84. ENORMOUS CHANGES AT THE LAST MINUTE:STORIES(마지막순간의 대변화:소설집). 그래이스·페일리(1974년)
85. CREATIVE AGGRESSION:THE ART OF ASSERTIVE LIVING(창조적 공격:능동적 생활기술). 조지·바크와 허브·골드버그(1974년)
86.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사회생물학:새로운 합성). 에드워드·윌슨(1975년)
87. THE GREAT WAR AND MODERN MEMORY(세계대전과 그이후). 폴·펏셀(1975년)
88. THE DEAD FATHER(돌아가신 아버지). 도날드 바텔름 DONALD BARTHELME(1975년)
89. THE COLLECTED BOOKS OF JACK SPICER(잭·스파이서전집). 로빈·브레이저(1975년)
90. PUEBLO:MOUNTAIN, VILLAGE, DANCE(푸에블로인디언:산, 마을, 춤). 빈센트·스컬리(1975년)
91. THE PAINTED BIRD(페인트칠한 새). 저지 코신스키(1976년)
92. 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2원적심리 분석에 있어 서의 의식의 기원). 줄리안·제인스(1977년)
93. THE LIFE OF THE MIND:VOL.1~2(정신의 생명:1~2권). 한나·아렌트(1978년)
94. THE WORLD ACCORDING TO GARP(가프의 세계). 존·어빙(1978년)
95. THE SNOW LEOPARD(눈표범). 피터·매티센(1978년)
96. ENDANGERED AND THREATENED PLANTS OF THE UNITED STATES(미국의 희귀식물들). 에드워드·아이옌수와 로버트·드필립스(1978년)
97. THE CULTURE OF NARCISSISM: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자기도취 문화:사라지는 기대의 시대에 사는 미국인의 생활). 크리스토퍼·래쉬(1979년)
98. TAX LIMITATION, INFL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과세제한, 인플레이션및 그 정부의 역할). 밀톤·프리드만(1979년)
99. THE DREAM AND THE UNDERWORLD(꿈과 지하세계). 저자 제임스·힐맨(1979년)
100. THE REAL WAR(진짜 전쟁). 리처드·닉슨(1980년)

(LA지사)

1만5천명 군병영에 구금
타임즈보도, 재판도 거치지 않고

한국정부는 1만5천명의 사람들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육군병영에 구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구금중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타임스의 헨리·스톡스 기자는 동경발 기사에서 대부분이 일반 범죄자들이고 소수의 정치범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들은 지난해 8월 구금될때 발로 차이거나 총개머리판으로 심하게 얻어 맞았으며 5백명이 수용돼 있는 한 병영에서는 5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이기사는 이같은 군병영 피구금자의 말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세계」지 최근호와 「한국문제에 관한 비상기독교인회의」가 발간하는 「KOREAN COMMUNIQUE」에 보도되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폭력배들에 대한 「순화교육」 내용이 간행물에 의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영자일간지 KOREA HERALD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57,561명이 체포되어 이중 38,259명이 군병영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금년 계엄령 해제후에도 6,506명이 정신개조 훈련을 받고 있으며 6,852명의 상습폭력범들은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난 1월 보도했는데 따라서 헤럴드가 밝힌 군병영 피구금자수 13,358명과 피구금자들이 전한 숫자 15,000명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타임스지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회에서 이들 「순화교육」혹은 재교육」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들의 처우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최근 통계숫자는 밝히지 않은채 이들 개개인이 모두 협의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감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지와 「KOREAN COMMUNIQUE」에 의하면 이수용자들은 지난 1월24일 해체될 때 2명의 헌병과 1명의 관리들에게 각자 불려가 구금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도록 권유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헌병이 총을 겨누며 강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지사)

리더스 다이제스트

聖書 요약판 물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요약하거나 바꿀수 없다고

〈뉴욕-AP〉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독자들이 알기쉽게 요약 출판하는 리더스·다이제스트 잡지가 이번에는 성경요약판을 출판하려고 벼르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은 미국의 보수적 정치단체인 모랄·머조리티(MORAL MAJORITY)회원들.

뉴욕지부의 다니엘·포어목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요약할 수는 없다 고 말하고 "리더스·다이제스트의 성서요약은 마치 하나님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비유했다.

리더스·다이제스트는 현대어역성서(RSV) 66권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보다 40% 정도 짧도록 요약하여 내년에 출판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통파는 요약판이 아닌 현대어역성서(RSV)마저 그릇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RSV 요약판은 커다란 반대에 부닻칠 가능성이 많다.

리더스·다이제스트의 성서요약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한 포어목사는 리더스·다이제스트가 종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성경의 핵심을 뽑아 없앨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모랄·머조리티는 리더스·다이제스트의 성서요약판을 출판 금지시킬 수 없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불매운동이나 읽기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모랄·머조리티에 이어서 로만·카톨릭 교회와 유태교 지도자들도 리더스·다이제스트 성서요약판 출판계획 반대운동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리더스·다이제스트 측은 일반 대중이 성서요약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성서요약출판 담당편집자인 잭·휠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짧고 이해하기 쉬운 성서출판을 다짐하고 있다.

휠쉬는 요약판이 성경의 정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모랄·머조리티의 비난에 맞서고 있다.

俳優로렌 파경直前 佛의사와 데이트中

◉···소피아·로렌(46)과 프로듀서 카롤·폰티(67)와의 24년간 결혼생활이 파경직전에 이르렀다.

로렌은 오래전부터 54세의 프랑스암전문의사와 교제중.

현재 로렌은 폰티와의 사이에 12살, 8살난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상대방도 부인과 세아들을 두고 있다.

캐롤라인에 새愛人 워싱턴 컬럼니스트

◎···캐롤라인·케네디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올해 23살인 캐롤라인의 상대는 30세의 컬럼니스트인 마틴·카플란.

대머리로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카플란은 워싱턴·스타지의 컬럼니스트로 전 몬데일부통령을 위해 연설문을 대신 써주기도 했다.

스탠포드대학졸업후, 영국 캠브릿지대학에서 영문학석사학위를 얻었으며, 하바드대학에서 다시 생물학을 전공한 카플란은 명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은 지난 2년간 소설가인 톰·카니와 사귀었으나, 카니가 지난 연초 연상의 사진사와 결혼하는 바람에 실연.

캐롤라인은 현재 뉴욕 데일리뉴스, 뉴욕 메트로폴리탄뮤지엄에서 일하며, 2명의 남자 1명의 여자 룸메이트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있다.

▲23살의 캐롤라인·케네디(左)와 새애인 마틴·카플란。

우연의 一致…첫女性 大法官영화

◎···최근 파라마운트사는 산드라·오코너여사의 연방 대법원판사지명에 자신의 입갈이 싱글벙글.

이유인즉 파라마운트사가 질·클레이버그, 월터·마듀를 주연으로 제작중인 영화 「10월의 첫 목요일」이, 바로 최초의 여성대법원판사이야기를 그린 것이기때문.

원래 이 영화는 감독들의 스트라이크로 인해 내년초에나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스트라이크가 잘 해결되는 바람에 올가을이면 볼수있게 되어, 제작진들은 우연의 일치에 매우 즐거운 표정이다.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출연하는 질·클레이버그.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도넛샆: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융선.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융선.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샆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융선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게지 잡아줌.
가격 : $18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DOMINION SMALLWARES

금주의 스페샬

Family Size Choco Bar	24/99¢	15.09
Reg. Size Choco Bar	36/40¢	9.95
Caramilk Thick Bar	36/55¢	13.75
Leaf Ball of Fire Gum	48/ 5¢	1.45
Navy Corn Gum	200/ 3¢	3.89
Dad's Apple and Oatmeal Cookie	12/30¢	2.09
Sun Flower Seeds with Shell	25/25¢	3.95
Life Savers Candy	25/30¢	4.45
Y & S Twizzlers	60/ 5¢	1.95
Big Leaugue Chew	12/59¢	4.65
Raiders of the lost Ark	36/25¢	6.14
Kisko Drinks	24/30¢	4.09
Soft Granola Bars	40/40¢	7.33

' 이 기간동안 할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재 카나다 한인친선 탁구대회

장 소 : 994 Carlaw Ave.(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WEST WOOD AVE.)
시 일 : 1981년10월10일(토) 오전9 : 30
참가자격 : 토론토거주 교민
경기종목및 참가비 :
단체전(4단1복) $20.00
남녀개인전 $ 3.00
개인복식 $ 5.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 2, 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3등
연 락 처 : 회장 정영모(922-9435)
총무 김동천(243-0522)
주 최 : 재 카나다 한인탁구협회
후 원 : 한국일보·코리안저널·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미도파,
킴스카메라·거북이선물센타·
비·세븐 무역선물센터

재 카나다 한인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性敎育 바람 「鐵의 帳幕」도

수십년동안 패쇄적 성도덕을 고집해왔던 소련에도 가까운 시일안에 성교육이 각급학교의 정식교과과정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소련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아는 최근 당국이 교육원에 성교육교과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로운 성교육과정을 지도할 요원을 양성토록 명령했다고 발표하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원만한 가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아는 이같은 계획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당국이 곧 외국의 실험결과를 분석,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지역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성교과 과정을 설치할 것이며 빠르면 오는 가을 교과서가 배포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책자를 저술해온 유리·리우리코프는 당국의 조치가 뒤늦은 감이있다고 말하고 「너무 오래동안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성지식을 습득해 왔으며 이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성에대해 전혀 모르는채 그대로 결혼,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고 개탄했다.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 아내를 다루는 법을 전혀모르는채 결혼, 여성들의 불감증을 높여왔으며 이로인해 이혼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

소련당국은 이혼율이 크게 높아지자 70년대말부터 일련의 시험적인 이혼방지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모스크바지역의 25개학교에서 실험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들 학교에서는 성기교와 피임가정운영, 성교시의 마음가짐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갓 결혼한 젊은이들이 초치돼 교육을 받게되는데 교과서를 쿠폰제로 팔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많은 사회학자들은 조기성경험의 폐단을 들어 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소련젊은이들은 현재 남성의 50%, 여성의 30~40%가 19세 이전에 이미 성경험을 하고있다.

한사회학자는 소비에트스타야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찍부터 성교육을 실시한 서구국가에도 이혼·성병·창녀·마약복용·자살·폭력등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성교육실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성이란 본디부터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적무지에 대한 우려는 지식인에게 만국한되지 않고있다.

많은 젊은 소련여성들은 서방국에서처럼 본격적인 시위는 벌이지 않고있지만 일방적으로 성만을 요구[illegible] 소련남자들을 비난하고

▲직장에서 휴식시간에 체조강습을 받는 소련여성들. 이들에게 금기처럼 여겨져온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주말한글학교 개학

무용, 태권도 영어등도

지난 26일부터 토론토 일대의 주말 한글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다.

씨알한국인학교, Y한글학교, 한맘한글학교등은 26일부터 가을학기를 일제히 시작,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토요일 상오10시 기자가 찾아간 씨알학교에는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지난 방학동안의 이야기등을 재잘거렸다. 어린이들은 상오 2시간 동안 한글, 한국사등을 배우고, 하오 에는 무용, 음악, 영어등 선택과목을 택해 하루 5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토론토대학 학생 조군은 "많은 어린이들이 영어가 필요한데도 부모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학생들이 여름학교등을 통해 한글을 익힌 학생들이었고, 새로운 어린이들도 많이 보인다고 김숙희 부교장은 말했다.

◇미술시간에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우리말 잘하기대회

국민·중·고생대상

한·카청소년 문화협회는 오는 10일(토)하오 6시 30분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캐나다 한인청소년 우리말잘하기및 웅변대회를 실시한다.

「우리말 잘하기대회」는 12세미만 어린이로 "어머니", "한국말", "우리집", "한국"의 5제목으로, 하나를 골라 3~5분 이야기하며, 「웅변대회」는 12세이상의 중고교 생으로「2세교포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7분이내에 해야한다.

시상 : 각 최우수상, 1~3등, 장려상, 참가상.

연락처 : 기인용(789-7352, 222-3076)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⑲

팔리·모왓 원작, 천 재 중 옮김

오텍의 캠프에 늙은어머니 칼라가 해내는일은 매우 많았다. 그 가정은 잘 짜여져 있었고 일을제일많이 한다는것을 전혀 부담으로 여기는것같지 않았다. 예를들어 식구들 중에서제일 나이가 많은 칼라는 불때는일을 혼자서 맡아서했고, 매일 동네밖으로 나가 어떤때는 10여마일이나 떨어진 들판으로 나가 힘에 겨울만큼 땔나무를 해왔다. 왕복 20여마일 거리를 늙은이 혼자 걷는것이 심심하지 않겠는지? 오고가는 길목에는 재미있는것이 수없이 많다. 언덕위에는 늘씬한 암사슴들이 풀을뜯고, 연못가에는 긴 꼬리를한물오리가 큰 소리로 울어대고, 지나가는 길옆에 뇌조가 으슥한 둥어리에서 도망가면 쫓아가 받은 새끼가된 알을주어 오가면서요기를 한다.

가끔 땔 나무가 다 떨어지면 동네아이들이 그녀를 따라 나무를 하러간다.

고아가된 오텍의 누이아들인 아토날릭은 고무총을 갖고와서 새들을 쫓아다니며 잡아와서 칼라한테 자랑을 했다.

혼자서 나무를 하러다녀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많은 추억이 산재해 있었다. 그녀의 일생을 통해서 세남편을 거쳤고, 그들사이에 열두명의 자식들을 낳는동안 백인으로서는 처음인 타이렐씨가 이 강변까지 찾아온것을 보았으며, 3대에걸쳐 일어난 모든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칼라는 나무를 해오고아이들의 옷을짓고 아궁이에 불을때는 일을 도맡아서해도 자기가 하는일에 불평은 하지않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살림에는 통렬한비판을 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절대 복종하며이들에게 상당한 특권이있다. 만일 오텍이 짐승을 잡아오지 못하면 이 노인의 핀잔을 받고도 아무소리 못한다. 또 노인에게 화를내지 않을뿐만 아니라 겁먹은듯이 피식 웃고는 머리를 흔들면서"어머니 내일은 더 잘 해보겠읍니다.그리고 골수가 많이들은 새뼈를 구해가지고 어머니의 치아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해 드리지요"하고 대답한다.

여름이 되면 노인들은마을에서 할일이 많다. 어떤 곳에서는 노인들이 일을강요당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일이 없다. 노인들은 옆마을로 마실을가서 잡담도 하고 자기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마음대로 꾸지람을 줄수있는 권리도 갖고있다. (계속)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A : What do you think of my new car?
B : I think it's very nice. What year and make is it?
A : It's a '77 Chevy Caprice.
B : How much did you pay for it?
A : Fifty-five hundred dollars. I think it's a reasonable price.
B : I think so, too.
A : 새로산 제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 : 아주 멋 있읍니다. 몇년도 무슨차 인가요?
A : 77년도 쉐비 카프리스입니다.
B : 얼마 주셨읍니까?
A : 5,500불 입니다.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B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What make is it? : 무슨차(일반적으로 차 종류를 의미) 인가요? 「쉐비 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It's a Chevy. 라고 하면된다.

reasonable price : 값이 적절한

WHAT DO YOU THINK OF MY NEW CAR?

「새로산 이 타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영어로 옮겨보라고 했더니 꽤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분들도 How do you think of this tie?라고 대답을 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직역하여 How do you think ~ 로 표현한 것이나 상대방의 견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항상 What do you think ~ ? 라고한다.

예컨대 「그의 견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of his opinion? 「제 견해로는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합니다」 할때는 In my opinion, that's an excellent idea. 라고 하면된다.

본 칼람 담당자의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나다·뉴욕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시워)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바덴바덴(西獨) 29日=金榮佑특파원】88년 하계올림픽의 개최지가 서울이냐 나고야(名古屋)이냐를 판가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드디어 오늘열린다.

올림픽誘致 오늘밤 韓·日票對決

IOC총회서 한국提案설명

"어떤 나라도 入國·滯在보장"

투표에 하루앞서 29일(한국시간) IOC위원들은 상오와 하오에 걸쳐 제15회 동계올림픽 신청지와 제24회올림픽 신청지로부터 올림픽주최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날 하오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국의 서울올림픽유치단은 경기장시설의 완벽한 준비상황을 소개한뒤 서울올림픽의 의의를설명, 개발도상국에서의 첫올림픽이 서울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대표들은 또한 한국의 정치정세에 대한 일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올림픽기간동안 서울을 올림픽·테리터리로 설정, 어떤나라 어떤사람에게도 자유롭고 안전한 입국과 체재를보장하여 누구나 안심할수있는 올림픽을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대표단의 설명회는 朴英秀서울시장,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장, 鄭周永서울올림픽준비위원장, 李源京대한올림픽위원회고문, 劉彰順한국무역협회회장, 李元洪한국방송공사 사장등 6명의대표원이 출석한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시간의 허용시간중 30분은 자체설명,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는 IOC규정에 따라 우리대표단은 맨먼저 朴서울시장의 약2분동안에 걸친 인사말이 있은다음 曺대한올림픽위원장이 올림픽준비의 모든세부계획에 대해 10여분동안,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서울의발전상과 경기장시설을 소개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어 IOC위원및 국제경기연맹대표들은 안전한 올림픽개최의 보장을 확인하는 질문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81명의 IOC위원과 국제경기연맹대표들외에 처음으로 각국의국내올림픽위원회대표들이 업저버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측에 앞서 일본측대표단의 제안설명은 이날 하오 2시반부터 있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지난22일 추첨으로 결정된 것이다.

일본측의 설명회에는 모또야마(本山) 나고야시장, 나까다니(仲谷) 아이찌(愛知)현지사, 미야께(三宅)올림픽招致委실행위원장, 시바따(柴田)일본올림픽위원장외에 2명의 실무직원등 6명의 대표가 나왔으며 이들은 맨먼저 나고야를 소개하는 영화를 15분동안 상영한 다음 東京올림픽때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아즈마(東龍太郞)前東京시장의 메시지를 녹음으로 2분동안 들려주었다.

84세의 고령인 아즈마씨는 이녹음에서 몸이 불편하여 바덴바덴에 가지는 못하나 東京올림픽의 감격을 감안하여 다시 나고야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야께 실행위원장은 설명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고야가 단연 올림픽개최의 적지라고 주장하면서 나고야는 아무 말썽없이 조용히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IOC위원들은 나고야의 시설미비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양측의 설명회는 한국측이 다이내믹한데 비해 일본측은 조용한것이어서 대조적이었고 일부참석자들은 한국측이 보다 의욕적인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대표단측에서는 현재 IOC위원들중 15표정도 이상을 浮動票로 간주하고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과 나고야의 경쟁은 이부동표가 좌우하리라는 계산아래 설명회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있다.

총83명의 IOC위원가운데 濠洲의 루이스·렉싱턴위원이 한달전에 사망하고 자메이카의 로이·안토니위원이 신병으로 불참함으로써 29일 투표에 참가하는 IOC위원은 81명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IOC총회의 유례없는 출석률로서 올림픽유치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준 것이다.

29일 실시될투표는 하오2시30분(한국시간 하오10시30분)부터 시작되어 먼저제12회 동계올림픽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캘거리(캐나다) 코르티나 담페초(이탈리아) 팔룬(스웨덴)의 3개후보지에서 결정한다음 이어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확정한다.

투표에서는 카지노의 별실로 옮겨진 본회의장에 자리를 옮겨 비밀투표를 진행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가 없을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종다수로 결정을내리게된다.

투표결과가 나오면 검표원들이 올림픽개최확정지의 이름을 봉투에넣어 봉한뒤 IOC위원들과 올림픽개최신청지대표들과 국제경기연맹대표들이 대기하고있는 본회의장에 돌아오고 여기서IOC위원장이 봉투를열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IOC·국제경기연맹·올림픽개최예정지사이에 약정서가 체결된다.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29일 하오4시께(한국시간 30일 자정)로 예정되고있다.

새마을지도자 28명 全대통령 훈장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9일 상오 靑瓦臺에서 우수새마을지도자 28명에게 새마을훈장과 포장을 수여한뒤 금일봉을주고 이들의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善吉상공부차관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金準회장 全敬煥사무총장이 배석했다.

波노조、司法獨立요구

지침서草案 자체放送局·경찰中立도

【그다니스크(폴란드) 29日=AP】 폴란드 자유노조는 전국대표대회 제2단계회의 4일째인 29일▲사법부의 독립▲정치사회문화의 다원주의▲자체방송국설립▲새로운 선거방식등 ▲새로운사회질서확립을위한 획기적인 내용의 지침서를 발표했다.

자유노조는 8백98명의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이 40페이지의 계획서 초안에서 이밖에 ▲정치일선에서 경찰을 제거할것과 ▲국영방송 매체에 자유노조논설위원회를둘것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이계획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번대회에서 좀 더토의를 거친다음 표결에 붙여지게된다.

자유노조는 이계획서 초안에서 현재의 위기의 부분적인 이유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돼 자발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이루고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聖職者 1명 또 爆死

【테헤란29日路透=聯合】이란 호자톨레스람·알률바카 하셰미네자드가 이란북동부의 마샤드에서 수류탄폭발로 폭사했다고 이란관영파르스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伊機、카다피搭乘機요격기도"

리비아通信 주장

【베이루트(레바논) 29日 AP】 이탈리아 공군의 제트전투기 한대가 리비아의 카다피대령을 태우고 유고방문을 마친뒤 귀국중이던 리비아의 제트항공기를 요격하려했었다고 리비아관영 자나(JANA)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이러한 이탈리아의 시도는 카다피대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음모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보도는 이탈리아 전투기의 종류와 정확한 요격의도를 밝히지는 않았다.

農業재해保險 83년試驗실시

政府、農林水産 5차5년계획 확정

쌀 87년부터 完全自給

農地轉用억제·감자등 10大戰略作物재배

耕地정리 20%융자·水利畓 76%로

총 2兆2千億 財政투융자로 增産

◇쌀 自給計劃

糧穀年度	'81	'82	'86	'87
	百萬石			
生産	24·7	38·0	41·2	41·9
消費	39·1	40·2	41·4	41·8
自給率	63%	94·6	99·4	100·5

◇投資計劃 (단위 80不變 10億원)

事業	計	財政投融資	地方費	金融	自己資金	借款
農林水産業計	5,872·7	2,191·8	283·3	1,417·5	1,784·2	195·9
<農業部門>	4,611·9	1,707·0	210·5	1,276·4	1,223·2	194·8
1,農業生産基盤造成	1,489·3	1,169·9	126·8	0·8	143·9	47·9
2,農業機械化	1,381·9	182·1	2·5	754·8	442·5	
3,農家所得支援等	1,087·3	244·5	43·5	334·7	452·3	12·3
○食糧增産	177·8	39·3	15·2	59·4	63·9	
○經濟作物獎勵	131·4	25·7	6·0	71·5	28·2	
○農業金融支援	62·5	62·5	—		—	
○其他事業	715·6	117·0	22·3	203·8	360·2	12·3
4,農水産物流通改善	607·5	87·4	19·0	186·1	180·4	134·6
5,農村指導事業	45·9	23·1	18·7	—	4·1	
<水産業部門>	610·4	295·6	15·8	141·1	156·8	1·1
<林業部門>	650·4	189·2	57·0	—	404·2	

정부는 5차5개년계획기간(82~86년)동안 農林·水産분야에 2조2천억원의 財政을 投融資, 쌀의 安定的 增産으로 主穀의 自給率을 81년도의 63%에서 목표연도인 86년에는 99·4%로 높일것을 골자로한 農水産분야 5차5개년 실천계획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또 이계획은 기간중 농업용수10개년 개발계획의 前半期사업을 끝내 旱害를 덜받는 農業基盤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기후에 알맞는 10大戰略作物의 중점개발로 소득을증대하는 내용등을 담고있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실천계획에 따르면 4차5개년계획기간중의 投融資규모1조6천억원보다 37·5%인 6천억원이증가한 2조2천억원을 투입, 生産性 향상과 技術개발을 유도, 農林·漁業부문의 年平均성장목표치 6%를 3·3%로 끌어올리는것으로 되어있다.

농수산부는 식량증산계획으로 쌀의경우 계획기간중 年平均 2%씩 증산, 81년糧穀年度(80년11~81년10월)의 생산량 2천4백70만석을 86년도에는 4천1백20만석으로 증산, 自給率을 99·4%로 높이고 87년도에는 4천1백90만석생산, 4천1백80만석소비로 완전자급을 실현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다.

농수산부는 연례적으로 겪고있는 旱害극복을위해 농업용수10개년개발계획에 착수, 前半期인 86년까지 16만3천정보의 새로운用水개발, 현재 水利畓率 68%(89만3천정보)를 76%(1백3만1천정보)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특히 耕地整理확대를위해 농민이 현금으로 부담하고있는 20%를 내년부터는 3년분할상환하되 中期資金(年利16·5%)으로 지원키로했다.

農家所得源을 多元化시키고 耕地利用率을 높이기위해 우선 麥酒麥·참깨·땅콩·油菜·감자·채소·마늘·양파·사료작물·果樹등 10大전략작물을 선정, 기상조건과 地勢·自生的植物分布등을 기준으로한 재배적지에서 중점재배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86년까지 農作物災害保險制실시를위한 法律을마련하고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실시하되 83년부터 우선 쌀에대한 시험사업에 착수키로했다.

이밖에도 飼料原料를 현재의 옥수수 일변도에서 수수, 타피오카(泰國産감자)등으로 多變化하고 輸入先도 濠洲·南美·東南亞등지로 多邊化하는한편 輸入窓口에 民間업체참여를 허용키로했다.

농수산부는 水産業부문에서 계획기간중 정부投資규모의 13%인 2천9백56억원등 모두 6천1백4억원을투입, 人工魚礁시설 3만7천7백40ha를 확충하는등 水産資源을 조성하고 연근해 생산기반구축을위해 ▲어항시설 27만4천m ▲어선건조 8만2천톤 ▲動力7만5천마력을 개량키로했다.

◇트뤼도 캐나다首相이 29일 상오 釜山大淵洞 유엔묘지를 참배, 6·25參戰 캐나다戰歿용사 기념비에 獻花하고있다. 【聯合】

韓·加 經協확대에 합의

트뤼도首相 離韓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은 3일동안의 訪韓日程을 모두마치고 29일하오 8시30분 특별기편으로 離韓했다.

이날 공항에는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인사와 駐韓외교사절들이나와 歡送했다.

트뤼도수상은 訪韓기간동안 全斗煥 대통령과의 수뇌회담, 두차례에 걸친 總理회담등을 갖고 韓半島정세를 포함한 東北아시아정세와 경제협력증진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트뤼도수상은 광로를경유,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번에도착, 멜번에서 열리는 英聯邦회의에 참석한다.

트뤼도수상은 離韓에앞서 이날상오 總理전용기편으로 釜山에있는 유엔기념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月城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뒤 在韓캐나다僑民들을 接見했다.

이어 이날하오 佛國寺등 慶州史蹟을 답사하고 空路로 歸京한 트뤼도수상은 이날하오7시 숙소인 신라호텔迎賓館에서 答禮리셉션을 베풀었다.

社會漫評

莫上莫上

重化學분야 크게向上

16회 技能경기폐막 金41·銀37·銅39

서울金15 종합우승 京畿2位

【大田=金周彦기자】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28일하오 확정발표됐다.

지난24일부터 전국11개시도 기능선수7백94명의 선수가 참가, 27일까지 4일간 기량을 겨룬 이번대회에서 개 직종에 금메달(상금 백만원) 41명, 은메달(〃50만원)37명, 동메달(〃10만원) 39명, 장려상(〃)26명등 모두 1백43명이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금메달 15개를딴 서울이, 2위는 금메달11개를 따낸 경기, 3위는 금메달 5개를 획득한 부산이 각각 차지했다.

금메달 수상자를 소속회사·학교별로 보면 서울 正修직업훈련원이 제일많은 6명, 다음이 仁川기계공고와 金星社및 금성통신, 법무부 교도소 재소자가 각4명씩, 한백, 창원직업훈련원, 금오공고가 각2명씩의 순으로 되어있다.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기술위원장 金在中교수(昌原기능대)는 『올대회는 특히 기계조립등 중화학 공업분야 직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향상된 반면 새로 채택된 도자기와 한복등의 직종은 수준이 미달이어서 금상 입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한편 선반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한 인천기계공고 3년蔡學鳳군(18)은 『한국일보社가 보내준 선반기를이용, 훈련을 쌓아 금메달을 따게 돼 고마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한층열심히 기능을연마하겠다고 말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단체표창에서 金메달리스트 3명, 銅메달리스트 1명을 배출한 金星社가 銀塔賞을 받았다.

金塔賞 正修職訓

우수선수배출기업체와 육성기관에 수여되는 단체표창에서 正修직업훈련원은金6, 銀4, 銅1을 배출, 육성기관중 金塔賞을 수상했으며 金烏공고가 金2, 銀4, 銅4으로 銀塔賞을 차지했다. 銅塔賞은仁川기계공고(金4, 銀1)와 韓伯昌元 직업훈련원(金2, 銀3, 銅1)에 각각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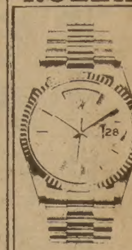
地平線

金瓶梅를 읽으면 주인공인 西門慶과 潘金蓮이 스태미너 食品을 즐기는 얘기가나온다. 제비수프, 오리의 혓바닥, 거위의발바닥, 군거위고기, 비둘기새끼를 통째 삶은것, 돼지족발등 별의별 진미성찬을먹는것이다. ▼지금도 중국요리에선 제비집, 상어지느러미, 곰발바닥을 제일로 알아준다. 곰은 언제나 오른쪽앞발을 핥는 버릇이있기때문에 곰의 침이 스민 발바닥에 영양이 담뿍있다. 또제비집은 옛날엔 같은무게의 은과 맞바꿀정도로 소중했고 상어지느러미엔 상어의 정력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단과일인 荔枝는 楊貴妃가 미모와 장수의 영양으로 즐겨 매일같이 따로 驛馬를 마련해서 남쪽에서 가져다 먹은것으로 유명했다.

▼옛날 鄭나라때 靈公의 公子宋(子公)은 맛있는 음식만보면 食指(人指)가 부들부들 떨리는 버릇이 있었다. 靈公이 자라요리를 먹으면서 公子에게는 먹으라고 안했기 때문에 靈公을 원망하고 죽이게된 故事까지 있다. 요즘의 폴란드騷擾도 그뿌리는 고기부족과 배급 차별에서 생긴것이다. 이토록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제일중요하여 불공평하면 원망을사기쉬운데 오늘의 北韓에선 너무나도 그동석 양상이 빚어지고있다. ▼지난달31일 임진강을 도하, 의거귀순한 裵丙官씨쪽으로에 따르면 金日成은 옛날 중국제왕들이나먹던 특별식을 먹고있는가하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안악군업곶리별도농장에서 재배한 無公害쌀이라야 먹는다. 과목·육고기가루등을써서 재배한 일은 한북청농장에서, 배추는 함북은화군 생안남에서 재배한다. 쇠고기는 황주젖소농장에서, 생선은 강령군 광천리 저수지에서 잉어를 따로 길러 8kg짜리만 먹고, 술과 당과류마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주민들은 하루 쌀30%, 옥수수 70%로 7백g을 배급 받지만 전쟁비축명목으로 한달에 3일분을 공제하기때문에 실제로는 6백9g밖에 못받는다. 부식류를보아도 쇠고기는 구경조차 못하고 돼지고기5백g~1kg을 金日成과 金正日생일때나 공급받으며 생선류도 동태를 한해 1~2kg 받는다니 너무나못먹고있는것을 한마디로 알수있다. ▼깻묵, 물고기가루를 비료로써서 만든쌀이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지는 몰라도 못먹고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눈제손가락(집게손가락=食指)이 부들부들 떨리고있는것을 金日成은 알고있는지 모르고있는지 食指故事를 알려주고 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2
은: 온스당 US 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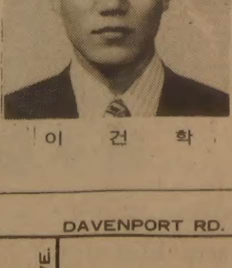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개업인사

이 영 두



이 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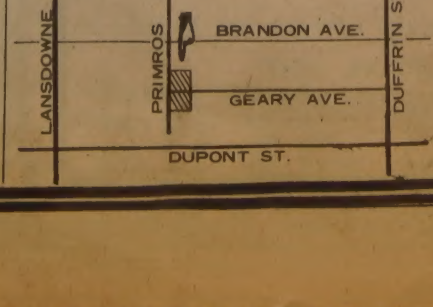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형제가 오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아래 장소에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춘 AUTO BODY SHOP을 개업하여 교민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따스한 애호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모시고 간단한 개업 자축연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영 두, 이 건 학 배

개 업 일 : 1981년 10월 7일 하오7시
장 소 : LISBON AUTO BODY INC
35 PRIMROSS AVE. TORONTO, ONT.
전 화 : (B) 533-8507, 533-8508
(R) 439-6548, 266-8925



LISBON AUTO BODY INC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和解의場」은 遼遠

極秘속에 진행된 2차 美蘇外相 회담

11월제네바서「戰域核」회담만合意

極秘회담…情報못빼내 波사태등 큰성과못봐

【워싱턴29日=曺淳煥특파원】소련유엔대표부에서 28일 열린 헤이그미국무장관과 그로미코소련외상간의 2차회담은 장장5시간이나계속됐다. 지난23일에 열린 1차회담이 4시간만에 끝났으니 헤이그와 그로미코는 두차례에 걸쳐 9시간동안 회담한 셈이다.

2차회담이 끝난후 피셔미국무성대변인은『솔직하고사무적이며 진지한 회담이었다』고 표현하고 국제적및 쌍무간의 문제가 광범하게토의되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2차회담에대한 묘사는 1차의「솔직하고 사무적인」것에서「진지한(Serious)」이란 형용사가 하나더 붙었다. 그리고 명년초에 아마도 제네바에서 두외상이 다시회합하기로 합의했다는것이 밝혀졌을 뿐이다.

피셔국무성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이 미국측의 기대대로 진행되었고 헤이그가 갖고간 모든 의제가 다 거론되었다고 말했다. 두차례회담에서 밝혀진 실질적인 것이라곤 오는11월30일에 제네바에서 미소유럽전역핵군축회담이 열린다는것과 헤이그-그로미코가 명년초에 다시회합하기로 합의했다는것 뿐이다.

이두합의도 형식절차의 문제이지 의제내용은 아니다. 헤이그-그로미코회담은 외교사상 유례를 찾아보기힘든 비밀의 장막에 가리워진 회담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어쨌든 내용을 끄집어내는미국의 언론도 속수무책인듯N BC·TV의 28일 저녁방송은『세계긴장완화를 위해 5시간 계속된 헤이그-그로미코회담은 내년초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여 성공적이었다』고 지극히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리송하게 보도했을뿐이다.

그러나 2차회담시「진지한 회담」이었다는 표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을 풀이하면「사무적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된」회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솔직」이란 표현은 외교용어이기때문이다.

미소간에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된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군축협상, 폴란드·아프가니스탄사태일 것이다.

미소는 2가지 큰문제에 관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군사력증강문제를 놓고 미소는 서로 상대방을 호전적·군사증강정책으로나가고있다고 주장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한다. 둘째 미소는 각기 상대방을 제3세계에 군사력을 내세워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다만 여기에 시간적 요인이 조금 다를 뿐이다.

유럽전역 핵군축협상만 하더라도 미소간의 의견은 예각적으로 대립된다.

미국은 유럽전역 핵군축에서 사정거리5천㎞인SS20과 사정거리가각각1천6백㎞와 2천5백㎞인퍼싱Ⅱ、크루즈·미사일 테두리에서 협상하자는 방침을 잡고있는데 소련은 이 미사일들 뿐아니라 나토에 기지를 둔 전투기및 폭격기와 대서양함대의 함재기들이 다 소련에 공격을 가할수 있으니 이들 항공기들까지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략핵무기제한협상(SALT)에 타결을 보지않고 유럽중거리미사일 제약에 합의한다는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나온다.

그것도 그럴것이 전략무기가 중거리미사일들을 파괴해버리는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이런저런문제로·유럽전역핵무기(중거리미사일) 제한회담은 지난20년간의 미소핵무기통제회담에서 유례를 찾을 수없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회담이 될것이라는데군사전문가들의견해가일치된다. 하지만헤이그-그로미코회담이예상되는미소군비확대경쟁에서 군축협상과 두외상의 대화통로를 튼것은 긴장완화에의 긍정적 요소가 된다.

◇다시마주앉은 美·蘇外相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왼쪽)과 안드레이·그로미코 蘇聯외상이 28일 뉴욕의 유엔本部 蘇聯대표부에서 제2차 美蘇외상회담을 갖기앞서 잠시환담하고있다. 【유엔본부29일AP電送=聯合】

國際焦點

美·蘇外相 내년초再會同 회담場所는 제네바 有力

【유엔본부28日AP=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과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은 내년초에 다시만나기로 결정했으며 그 장소는 아마도 제네바가 될것같다고 딘·피셔 미국무성대변인이 28일 밝혔다.

피셔대변인은 이날밤 뉴욕에서있은 5시간동안의 미·소외상회담이 끝난뒤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이날회담이『사무적이고 진지하며 매우 솔직한 분위기에서』열렸음에도 불구, 양측이『새로운 화해의 입문』에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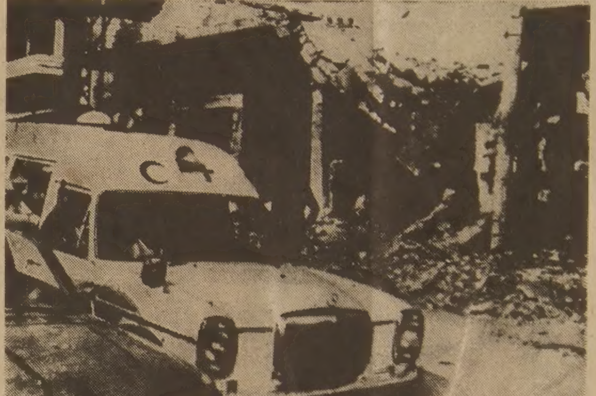
피셔 대변인은 헤이그장관과 그로미코 외상이『국제문제및 쌍무문제 전반』을토의했다고 말하고 헤이그장관은 특히『자제와 호혜』를 바탕으로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려는 미국측 희망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서 잇단爆彈테러 車輛에장치 12명死亡 50명負傷

【시돈(레바논)28日로이터=聯合】南部 레바논에서 28일상오(현지시간) 한 승용차에 장치된 강력한폭탄이 폭발, 7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를포함 최소한 12명이 사망했으며 50여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베이루트南쪽 68㎞의 즈라리예 마을입구에있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검문소부근에서 메르세데스 승용차속에 장치된 폭탄이 폭발,검문을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사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폭발한 폭탄이 TNT 40㎏에 해당하는 강력한 것이었으며 검문소부근의 상점과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車輛폭탄事故의 현장 수명의 팔레스타인군인이 약50명의 부상자를낸 지난9월28일 자동차폭파사건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있다. 이 자동차는 베이루트남쪽 약67㎞지점 마을입구 검문소에 주차하고 있었다. 【자리예(레바논) 29日UPI電送=聯合】

波政府·勞組 협상개시

南部鑛山서시위…緊張해소위해

간부釋放안되면 罷業…5개工場 加勢위협

【바르샤바28日로이터=聯合】폴란드정부와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는 이달초순 자유노조 제1차 전국대회1단계 회의의 TV보도문제를 둘러싼 정부~노조협상이 실패로 끝난이래 처음으로 폴란드남부 카토비체지역의 위급한 긴장상태해소를 위해 28일 바르샤바에서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카토비체지역의 소스노비체광산노동자들은 지난주 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前관영 노조지부지도자 1명을 축출했다는 혐의로 자유노조원인 타데우즈·아렌트가 체포되고 그에대한 석방요구가 묵살되자 이미 연좌시위에돌입, 30일 다음단계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실레지아 공업지구 탄도노동자들과 바르샤바 동남쪽 젠스토호바의 6개공장노동자들도 아렌트가 석방되지 않는 경우, 30일 파업을 단행할것이라고 선언했으며 폴란드중부의 비드고슈치 노동자들은 지난3월에 일어난 경찰의 자유노조원구타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중단된데 대한 항의하기 위해 다음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印機공중被拉 승객64명탑승

【뉴델리(인도) 29日UPI=聯合】승객64명을 태운 인도항공사소속 보잉여객기 1대가 파키스탄의 라호르로 공중납치되었다고 항공사 당국이 29일 발표했다.

납치된 여객기는 한국시간으로 이날하오 4시15분 뉴델리로 떠나 인도가 장악하고있는 카시미르 省都인 스리나가르로 가던 길이었다.

이란軍、전격 總反擊戰 11개월만에 아바단包圍網 분쇄

【베이루트28日AP=聯合】이란은 28일 이라크와 교전중인 이란軍이 지난주말 이라크군에 전격적인 총반격전을 펴 11개월간에 걸친 아바단의 포위망을 분쇄하고 이라크군 수천명을 포로로 잡는『2차대전이래 재래식전투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이란軍사령부 코뮈니케는 3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전투에서 이란軍은 이라크軍 6백50명을 사살하고 5천여명을 포로로 잡는 한편 국경부근의 정유도시 아바단을 포위중이던 이라크軍을 아바단서부 카룬江너머로 격퇴시켰다고 밝혔다.

蘇 情報艦1척 日近海에 순항 美日훈련때 목격

【東京29日AP=聯合】소련정보함 1척이 미·일합동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되고있는 일본남쪽 다네가시마(種子島)근해를 순항중임이 목격되었다고 29일 일본해상보안청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합동훈련에 참가중인 일본해상자위대구축함 히에이호가 28일하오 훈련수역에서 소련정보함(니콜라이·쥬코프급)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臺灣신문발표 美에 中共유학생 5千명 거의가高位層…명단公開

【臺北29日CNA=聯合】거의대부분의중공 최고위지도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미국에유학시키고 있으며 이들중 공고위층 자녀가운데 약 5천명이 미국내여러대학에서 정부장학금이나 자비로 공부하고있다고 대만신문중국시보가 29일보도했다.

이신문은 워싱턴 특파원기사에서 특히 중공고위층자녀들은 미국에서 중공정부 보조금으로 공부하는학생의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같이 이들의명단을 공개했다.

메아리

良心의 金메달

대전에서 열린 제16차 기능경기대회는 지난여러 대회에 비겨서 양적 또는 질적인 팽창과 향상을 보여 산업화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적이 마음 든든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은 특징은 대회사상 처음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기능종목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공예는 모든분야에 걸쳐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아름다움과 기능 쓰임새를 함께 갖추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난날의 생활을 지명했던 공예품들은 오늘날 미술품으로 보배처럼 다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그것들을 만들수 있었던 사람이나 그 솜씨는 천대를 받았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공예품의 생산담당자들은 장인으로 그 신분은 천인이었으며 자자손손 세습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대를 물려가면서 신분과 일을 세습해야했던 절망적인 상황속에서도 그들이 만들어 낸 공예품들은 오늘날 예술인들의 솜씨를 능가한다는것이 허다한데는 까닭이 있는 일이다.

비록 그들은 신분적으로 천민이요 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되었어도 되려 장인기질에 투철하고 이어받은 기능을 지키며 닦는데 양심을 쏟으면서 곁눈질 한번 하지않고 편법을 외길로 살았다.

남의 눈길 보다는 스스로의 눈과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 했고 또 스스로가 물려받은 일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않았던 자랑을 보람으로 삼았던 장인기질이 바로 지난날 공예의 왕국을 이룩하게 한 근본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해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 명기능인들이 뒤에 뒤를 잇고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경사요 더구나 법무부 재소자들이 다수참가하여 메달을 따내는 좋은 성적을 보임으로써, 새삶의 계기를 얻고 있는것도 기쁜일이다.

그러나 이기능인들에게는 훌륭한솜씨에못지않게 지난날장인들이 지키며지녀왔던그기질과 스스로의눈을속이지않으려했던 양심의발전이 기능의 연마못지않게 중요하다는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IOC와 한국 <4>

北韓의 單一팀구성 속셈

60년 로마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북한측은 느닷없이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들고나왔다. IOC가 로마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산권 IOC위원들의 책동으로 제56차IOC총회(60년2월·샌프란시스코)때 남북한 단일팀에의한 올림픽 참가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단일팀 구성이란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이같은 북한의 정치적제스처는 79년 평양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막을 2개월 앞두고 북한측이 갑자기 남북단일팀구성을 제의한후 회담결렬을 이유로하여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를 거부한 사실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책동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매스컴도 李起鵬 IOC위원을 비롯한 강력한 대표단을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파견 할것을 촉구 했다. 그러나 李起鵬 IOC위원은『李의장의 외국여행은 당무수행상 곤란하다』는 自由黨 당무회의권고에 따라 끝내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李元淳 李相佰 鄭월터 吳光善씨등이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참석하여 치열한 로비활동끝에 북한이 제기한 의제를 뒤로 미루는데 성공했다.

남북한 단일팀문제는 당초 소피아 제53차 IOC총회(57년)때 이야기가 나왔으나 브런디지 위원장등이 한국은 분단상태에있고 전시체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단일팀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많은 IOC위원들의 양해로 유보결의가 내려졌던 이슈였다.

그동안 IOC에서 논의된「한국문제」는 단일팀 구성, 호칭을 둘러싼 문제로 압축될수 있으며, 한국문제는 외국의 IOC위원들에게도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문제로 인식되어온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IOC위원들이 분단상태에있는 한국의 현실과 북한의 정치적 술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만족스럽지못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로마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떠들었던 북한측은 최근 黃相鎬 KOC위원장의 84년올림픽 단일팀 구성제의에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실제로단일팀을만들겠다는 뜻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呼稱」둘러싼 政治제스처

IOC總會서 北韓제안 留保성공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에 기여할수 있다는 기본인식밑에서 한국이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제기한데비하여 북한은 정치적인 선전목적으로 이문제를 들고 나온것이다.

호칭문제도 마찬가지 였다. 북한은 한국이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한반도를 대표하는 KOREA로 호칭되는데대해 불만을품고 63년12월 印度 뉴델리서열린 東京올림픽아시아지역예선전때부터 NORTH KOREA의 호칭을 DPRK로 변경할것을 주장하기 시작, 68년 폴란드 바르샤바서 개최된 제68차 IOC총회때 공산권 IOC위원들의 힘을 빌어 변칙적인 수법으로 호칭을 DPRK로 바꾸었다. (이부분 다음回서상술)

64년10월 한국인으로는 두번째로 李相佰씨가 IOC위원으로 피선되었으나 66년4월 별세, IOC위원으로서는 단명으로 끝났고 이듬해5월 張基榮씨가 이탈의 테해란서 열린 제65차 IOC총회때 IOC위원으로 피선, 그후만 10년동안 국제스포츠무대에서「행동하는 IOC위원」「한국의 타이거」로 불리며 정력적인 활동을했으며, 張IOC위원을 후계하여 金澤壽씨가 77년6월 IOC위원으로선임됐다. (북한에서는 78년 김유선이 첫 IOC위원이됐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張基榮IOC위원이 부딪친 최초의 시련은 68년10월멕시코 시티서 개최된 제67차IOC총회때였다. 이총회는 북한이 멕시코올림픽에「노드·코리아」의 명칭으로 참가하고 그이후에는「DPR코리아」의 호칭으로 참가하도록 결정했는데, 張IOC위원은 66차IOC총회(68년2월·그르노블) 결정사항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르노블총회에서는 올림픽 대회에서의 북한의 명칭은 노드·코리아, 한국을 코리아로 부르도록 결정하고 이 호칭은 한반도가 통일될때까지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르노블총회 8개월만에 이같은결정은 흔들리게 되었다. 【金在琛기자】

◇북한의 호칭 문제가 거론된 제67차 멕시코 IOC총회(68년10월)에서 張基榮IOC위원이 브런디지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들국화

권숙월

열매도 되지 못하는
꽃을 피운다.

그래도 神의 갈채는 빛살로 넘친다.

산이거나 들이거나 한 눈 팔지 않는다.

화려한 꽃들 앞에선 얼굴 없이 지내도
연약한 雜草와는 울도 없는 이웃이다.

누가 와서 자주 봐라고 하나보다
들국화는 살래살래 아니라고 한다.

지켜보던 먼 산이 성큼 다가서서
우람한 품을 열고 있다.

하늘은 작은 구름도 밀어내고 있다.

키큰女性이 癌發生率높아 뚱뚱하면 나이들수록 위험

東京癌硏센터 조사

【東京29日=宋李彬특파원】키가 큰 여성이 키가 작은여성에비해 유암발생률이 2배가 높으며, 뚱뚱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유암에 걸릴 경향이 높다는 것이 東京癌연구센터 조사결과에서 밝혀져 주목되고있다.

이연구소는 29일 일본식생활이 歐美式으로 변해 영양섭취가 좋아져 키가 커진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여성호르몬의 분비상태가 변화하여 유암증가의 원인이 되고있는것같다고 발표했다.

사까모도 (坂元)박사를 주임연구위원으로 한 이암연구센터조사팀은 65년~74년까지 10년동안 유암수술을받은 1천5백87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결과 이상과같은 결론을 얻었다는것이다.

평균키보다 큰 유암환자가 1천60명으로 67%를 점했고 거꾸로 키가 작은 환자는 33%밖에 되지않아 유암수술을 받은 환자의 배이상이 키가 큰환자였음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비만과 유암과의 관계는 49세까지는 보통인 여성이 제일많았고 50~59세까지는 비만형이 42%, 중간이 38%, 마른사람이 20%이고 60~69세까지는 비만 43%、보통 38%, 마른사람 18%이며 70세이상은 비만 52% 보통33%, 마른사람 15%로 나이가 들수록 비만형의유암발생률이두드러지게 높았다.

海外토픽

不治病아내 安樂死

★75세老人이…자신도自殺

베일리·그로스클로스라는 75세의 한미국노인은 불치병에 걸려 누워있는 아내 루실노파(74)를 요양소로 찾아가 사살하고 자신도 머리에 총을쏴 아내곁에 나란히 누워숨졌다.

루실노파는 뇌조직이 점점 파괴돼 회생할 가망이 없는 불치병으로 침례교 요양소에서 6개월간 요양하며 누워있었는데 경찰당국은 그로스클로스노인이 아내를 안락사시키고 자신도 동반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츠버그=UPI】

商店서 칫솔훔쳐

★잡고보니 矯導所소장

미국의 한 연방교도소소장이 상점에서 물건을 들치기하다가 주인에게 들켜 구속기소됐다.

침례교 전도사이기도한 잭·핸버리란 조지아주 연방교도소소장은 상점에서 칫솔하나를 집어 포장을 뜯어 버리고 슬쩍 호주머니에 넣다가 주인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는것. 【아틀랜타=UPI】

泰, 물소의날制定

★肉體美대회등 개최

태국은 전통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중요한 반려인『물소의 날』을 제정, 물소들의 노고를 기릴계획이다.

태국동부 촌·부리省당국의 계획에 따르면 매년10월12일을 물소의 날로 정하고 물소들에게 달리기경주와 육체미대회등을 베풀어 우승한물소를『농민들의 연인』으로 표창한다는것. 【방콕=AP】

도산서원 入場料 1百% 인상要請

【安東=聯合】경북安東郡은 26일 사적제1백70호인 도산서원 입장료를 1백%이상 인상해줄 것을 도에 승인요청했다.

郡당국은 일반 1백원에서 2백원으로, 학생및군인 70원에서 1백50원, 30명이상 단체일반 70원에서 1백50원, 학생·군인은 50원에서 1백원으로 올려달라고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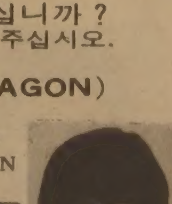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제 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장로장립, 집사안수, 권사 취임식을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 소: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 ONT.

●다 음●

장로장립: 김 대 억 집사, 윤 종 대 집사
집사안수: 정 범 천 집사, 유 승 효 집사
권사취임: 김 영 순 집사, 김 복 실 집사, 김 인 선 집사
일 시: 1981년 10월10일(토) 오전11시: 예 식
오후 1 시: 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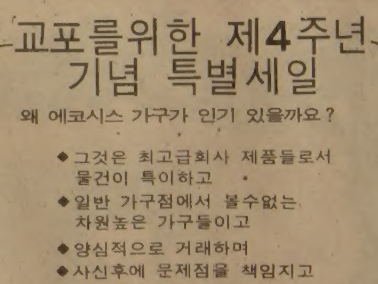
당 회 장: 안 병 한 목사
준비위원장: 심 의 팔 장로

갈보리한인장로교회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내년 서울서 金日成7旬잔치"

越南 귀순한 裵丙官씨會見

"이미 戰爭준비完了"

北傀狂奔

◇『남한에 와서보니 별세상에 온듯하다』는 裵丙官씨. 반공대열에 앞장서겠다고맹세했다.

지난8월31일 한강하구를 헤엄쳐 월남 귀순한 북한농부 裵丙官씨는 29일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괴는 80년을 전쟁준비완료의 해로 정해놓고 『82년 4월15일 金日成의 7순 잔치를 서울에서 해야한다』며 광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裵씨는 고향에서 중학을 졸업한후 『월남한 삼촌이 있다』는 이유로 불순계층으로 분류되어 진학을 거부당한채 협동농장 유선방송실 선로공과 농기계수리공원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려왔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마을에 새로 세우는 높이20m의 金日成추대탑 축조작업에 나갔다가 공사를 잘못해 책임추궁을 받던중 평소 남한방송을 통해 동경해오던 자유대한을 찾아 월남을 결행했다고 귀순동기를 말했다.

裵丙官씨는 북한의 농촌주민들은 대부분이 유선방송을 듣고있으며 북괴는 이 유선방송을 통해 金正日 지시사항, 김정숙투쟁사, 인민경제의결합및 개선책, 영농관리, 국내정세와 노래만을 들려주고 주민들이 가진 라디오의 다이얼도 고정시켜 유선방송과같은 내용만을 듣게하고있다고 말했다.

裵씨는 식량배급량이 모자라 하루 한두끼는 죽을먹으며 쇠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金日成·金正日의 생일때에만 돼지고기 구경을 하는것이 북한주민의 생활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고향安岳에는 꼭 한군데 공중목욕탕이 있지만 겨울에는 연료난으로 문을안열기때문에 겨울내내 목욕을 못하고 지나는것이 그곳생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81년을 전쟁준비완성의해로 정해놓고 오는10월10일 북괴당창건일까지 각동리및 직장별 방공호공사와 곳곳에 만들고있는 토치카공사를 끝내라는 지시아래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동원, 횃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裵씨는 말했다.

裵丙官씨는 또 金正日이 『수령님 살아생전 조국을통일해야한다』고 떠들면서 지난8월부터는 각공장마다 편성된 교도대를 조선인민군교도군으로 개칭하고 군마다 교도여단을 창설해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괴의 金正日부자 우상화운동이 더욱 악랄해져서 지난5월부터 전국에서통일된 형태의 金日成추대탑을 만들고 각지역의 金日成동상엔 금도금을하고있다고 裵씨는 폭로했다.

警察순찰대 함정團束 잦은시비로 交通滯症

【原州=聯】嶺東고속도로상에서 각종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순찰활동을 펴고있는 경찰고속순찰대가 급커브길에서 함정단속을 펴고있어 운전사와 시비가 잦고 신경과민이된 경기노선 화물트럭등이 거북이걸음으로 운행,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5일하오4시30분께 嶺東고속도로하행선인 東華橋급커브길(新葛깃점79㎞)에서 비상등을 끈채 잠복해 있던 고속순찰대 강원1가 1×2호 신진지프(운전사 朴모씨·44)를 정지시킨후 속도위반이라며 스티커를 떼겠다고 욱박지르다가 이를 완강히 부인하는 운전사와 한차례 시비가 붙기도했다.

특히 이고속순찰대는 야간에도 후미진곳에서 비상등을 켜지않은채 잠복근무하는 일이 많아 추돌사고등의 위험성마저 안고있으며 이같은 함정단속에 신경과민이된 차량들은 거북이걸음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운송물량을 제시간에 대지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새旅券

有効기간5년…사실상複數

한글로 一括記入制

◇새 여권㊧과 舊여권。페이지수가다르며 종전의 태극표지가 무궁화로 바뀌었다。

유효기간 5년의 새 여권이 오는10월1일부터 발급된다.

지난8월1일부터 발효한 새여권법시행령에 따라 발급되는 새 여권은 관광, 해외친지방문을 제외한 모든 여권의 유효기간을 과거 1~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실상 복수여권과 다름없게 됐다.

여권장수도 종전의 24페이지를 56페이지로 늘리고 목적지 개별기입제도를 지양, 여행不許대상국 19개국을 제외한 해외전역을 무제한 여행할수있는 네거티브·시스템(일괄기입제도)을 채택하고있다.

朝鮮中期이후 典籍 1千點 첫일반公開

【馬山=聯】지방문화재수집가인 金昌文씨(60·경남 馬山市大安洞13의15)의 『朝鮮王朝典籍5百年展』이 馬山市新浦洞무학쇼핑센터 전시실에서 27일부터 한주일동안 열린다.

이전시회에는 金씨가 30년간 전국각지에서 수집, 소장해온 4백여년전 李朝宣祖이후의 진사, 생원과거시험 답안지인 科紙 1백여점과 노비문서 20여점, 상시의 임명장인 敎旨3백여점을 비롯, 소송문서, 관결문, 토지소유권인정서, 임진왜란때 泗川·晋州성함락기록, 상소문등 1천여점이 공개되고있는데 이같은 문화재급 각종전적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1世界歌謠祭 18개국 참가

11月 세종문화회관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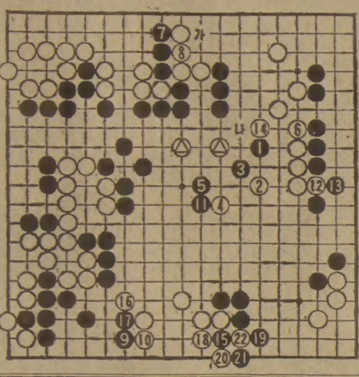
81세계가요제(KBS주최)가 오는 11월7일 美國, 이탈리아, 英國, 스위스, 日本, 西獨등 1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대표선발대회는 오는10월17일 KBS별관 공개홀에서 펼쳐지며 4~5명의 한국대표를 선발할예정. 10월10일까지 참가선수를 받는다.

제13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4局 第6譜 101~122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敗)
黑(6段)徐能旭(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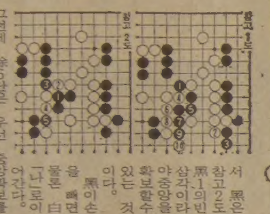
黑 下邊에 先制攻擊

전보에서 黑1의 급소를 찔린 鄭4단은 8분가량 난감한 표정으로 대책에 고심을 했다. 장차 △표2점이 차단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白6자리를 黑이 나와 끊으면 문제는 심상치않다.

우선 白2, 4로 중앙쪽을 보강하고 白6으로 막아야 되었는데 黑11까지로 중앙黑집이 부풀어서 白은 갑자기 엷세가 두드러졌다.

도중 黑7은 뒷날 黑「가」등의 끊음수를 노린점일까. 두고봐야할 일이다.

白이 12를선수하고 14에 호구로 붙였을때 徐6단은 선뜻 응하지않고 생각한다. 이런곳은 당연히 黑「나」로 끊어잡을것 같았는데 그게 잘안되는 모양이다. 黑「나」면 참고 1도처럼 되어 黑이 낭패가 나기때문. 따라서 黑은 참고2도 黑1의 빈삼각이라야 중앙을 확보할수 있는 것이다. 黑이 손을 빼면 물론 白「나」로 이어간다.



그런데 徐6단은 우선 중앙확보를 가볍게보고 하변, 白에 黑15이하의 선제공격을 개시했다. 白16을 선수하고 18에 막은이상 黑19로 패를 유도한것은 기호지세. 다만 白22 다음 黑의 패쏨에 문제가 발생한다. 【一凡】

流星의 賦 <195>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明暗⑮

화(和)와 정(情)으로서 부하들을 통솔하게 되자, 저절로 기강이 서게 되었다. 계남의 나날은 평온하고 유쾌하게 흘러갔다.

부하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다채롭게 되었다. 그 중엔 나인(內人)들과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 궁금(宮禁) 지밀(至密)에서 새어나온 소식도 있었다.

어느날밤 군졸 몇사람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자리에서 군졸 하나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

『사용님, 지금 임금님의 아들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칠 팔명 되는 것 아닌가』

『어림없소. 왕자만 해도 열셋이랍니다』

『열 셋. 그렇게 많은가?』

『게다가 옹주(翁主)가 열이라고 하니 도합 스물셋의 자녀를 두었다. 이겁니다. 나이 아직 사십이전이니 환갑까지 산다고 치면 근 백명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 다른 군졸이

『정사는 안 보고 아이만 만들고 있는 개비여』

하고 좌중을 웃겼다.

『정사는 대신들이 할게니께 아이만 만들고 있어도 되겠지 뭐』

하는 군졸도 있었고

『왕자호색(王者好色)은 고래로 있는 일이다. 대국의 황제는 후궁 3천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하고 제법 견식을 자랑하는 군졸도 있었다.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음담패설(淫談悖說)로 흐르게 마련이다.

임금이 후궁들과 정사를 할땐 내시(內侍)인 녹사(錄事)가 옆의 방에 앉아 그것을 기록한다는 얘기.

그 까닭은 어린 애를 뱄을때 진부(眞否)를 대조하기 위해서란 것, 아무리 불알이 없는 내시일망정 정사하는 소릴 듣고있으면 마음이 울렁울렁할 것이란 얘기…

얘기들이 문란하게 되자

『조청주언(鳥聽晝言) 야청서언(夜聽鼠言)이라고 하느니라. 더우기 임금님을 모독하는 언사는 좋지못하다』고 홍계남이 준절히 제동을 거는 것이지만 일단 불이 붙은 음담을 꺼버리긴 쉽지가 않았다.

음담이 한 단락을 지우면 으레 김귀인(金貴人)이 화제에 올랐다. 당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귀인이 그처럼 일색인가?』

『그보다 잘난후궁도 많은데 김귀인이 특히 총애를 받는건 수단이 비상한 때문이야』

『무슨 수단?』

『×× 하는 수단』

『에끼, 이 사람』

좌중은 나갈방으로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다가 화제는 김공량(金公諒)으로 옮아갔다.

별좌 김공량은 누이 김귀인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편승하여 안하무인적으로 세도를 부렸다. 대신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면 그 세도를 대강 짐작할만하다.

『김공량 같은 놈이 세도를 부리게 놓아두는걸 보면 임금님도 딱해』

하는 소리까지 나왔다.

홍계남은 언젠가 종로에서 별좌의 신분으로 구종별배(驅從別輩)를 거느리고 가마를 타고 가는 김공량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느꼈던 불쾌감을 회상했다.

모눈종이 위의 生 <214>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돌개바람불다⑱

『그분을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있어. 그 친구가 쌀한가마로 추천을 따냈다는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구』

『어머?』

『그뿐인줄 알아? 매저키스트라는 소문도 있어. 밤마다 여자한테 한 바탕씩 얻어 터져야 겨우 잠자리에 들수 있다던가? 그래서 부인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거야. 영문학을 하는 좀 괜찮은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로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구. 사십 몇 평이나 되는 큰 아파트에 혼자살고 있는데, 그럴밖에. 밤마다 시끄러워서 이웃 아파트사람들까지도 파출소에 신고를 할 정도라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파트는 왜 빌자고 했어요?』

내가 날카롭게 그의 말에 뒤어 들었고, 그는 무슨 말인가 싶은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영화 각본 쓰시는 동안 빌자고 했다면서요?』

『J가 그럽디까?』

그가 물었고, 나는 끄덕여 보였다. 그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그런데 자기가 거절했다고?』

나는 다시 끄덕여 보였고, 그가 다시 말했다.

『능히 그렇게 말했을 친구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요. 그 친구가 자기 아파트로 오라 오라 하는걸 내가 거절한거야. 당신이 여자한테 얻어맞고 우는 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고. 오금을 박았더니 히죽이 웃읍디다. 혹시 이번 영화의 주제가 작사를 말아 달라고 했다고 불평은 하지 않습디까? 여기 저기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내 귀에까지 들어오던데…』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J씨로부터 그 비슷한 뜻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더 이상 J씨의 험구에 흥분해 있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사실은 그것도 반대요. 그가 작사는 자기가 맡겠다고 스스로 나선거요. 벌써 두어편 만들어온 걸 퇴짜놓았더니… 가만, 그런데 종희는 언제부터 그런 친구하고 가까와진 거야?』

『그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망설이다가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날밤 J씨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수선한 모습으로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나는 그것을 좇아 버렸다.

『조심해. 그 친구야 말로 추문의 메이커니까. 함께 술집에들른 정도로 호텔에 갔다고 떠벌릴 친구라구』

나는 뒤죽박죽의 느낌이었다. J씨에 관한 그의 악의적인 비방들이 이제는 터무니없는것 같지만도 않았고, 그의 아파트에 따라가 그와 함께 자버린 일이 커다란 영상으로 자꾸만 눈앞에 다가왔다. 나는 발작이라도 일으킬것같은 느낌으로 소리쳤다.

『왜 그분 얘기는 자꾸 하시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가 힐끗 나를 보았다. 그런다음 그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친구가 종희를 노리고있기 때문이야. 언제던가. 광화문에서 여럿이 함께 만난일이 있잖소? 그때 이후 J가 종희한테 여간 많은 관심을 표시하는게 아니었어. 별걸 다 물어 보고 문학소녀 같다고, 이중인격자(二重人格)고… 아무튼 그친구한테 걸려서는 재미 적어』

아무렴 칠년 전 당신의 마수(魔手)에 걸렸던 것보다 더 나쁘겠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가 을 맞 이 대 세 일

녹용을 잡수실계절이 왔읍니다!

중 국 산 : 원녹용, 길림녹용, 직수입도산매, 우황청심환(동인당, 천진산, 남경), 사향, 우황, 편자광(간장치료), 해구신, 십전대보탕, 경명주사

캐나다산 : 웅담, 산삼(산지에서 직접수집), 해구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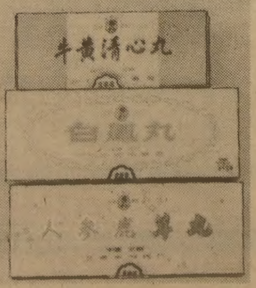
다량입하!!

LONDON FOG
바바리코트,
겨울코트 신형

LEVI'S여자용
SALE $14.95
REG. $29. 95

비타민및 로얄젤리!

구심, 호골환



동인당청심환

게부랄T,
비타민E

일본산 : 로얄젤리, 로얄젤리원액(미제도입), 간장보호제, 간장약, 비타민E, B콤푸렉스, 게부랄T, 고단위종합비타민, 어린이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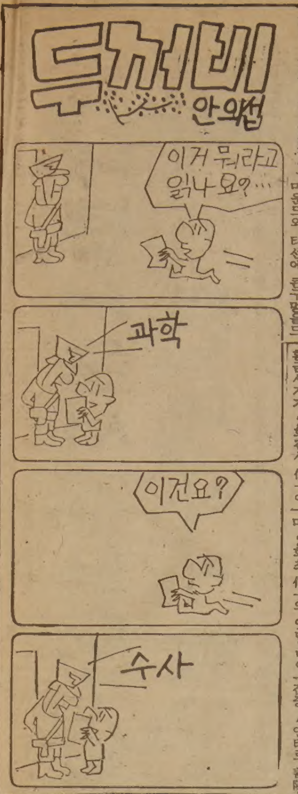
기 타 : 신경통특효약, 당뇨병약, 기응환, 구심, 용각산, 위장약, 간유구, 정력제, 해구환, 소화제, 무좀약, 호랑이기름연고등

★탈모증 특효약 입하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십니까?

뒷편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십시요

미도파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信一 8強서 慶北高와 격돌

黃金사자기 高校야구

釜山高, 明知高 눌러 5-2
光州一, 世光에 신승 1-0

無冠의 최강으로 위세를 떨치던 善隣商高가 고교야구 금년시즌 마지막 타이틀이 걸린 황금사자기대회서 信一高에 10-2, 7회 콜드게임으로 참패,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信一高는 2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4일째 2회전 경기서 좌완 朴鍾俊, 우완 金鍵友의 양날개가 떨어진 善隣商을 全炳國·徐孝仁의 홈런등 15안타로 두들겨 8점차로 대승하여 8강의 준준결승에 진출, 봉황대기·청룡기 우승팀인 慶北高와 겨루게 되었다.

馬山女高 準決진출
전국남녀 中高농구

"올림픽開催地 매번變更"
藥物服用 해당大會만 局限안해
五輪콩그레스 10개항建議文채택 폐막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58)

感激의 첫 선거

유엔 監視아래 5·10總選擧 실시
압도적支持 制憲국회議員에 當選

◇온국민들은 左翼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새나라 건설을 위한 5·10總選擧에 적극 참여했다. 사진은 初代 국회의원선거당시 후보자들의 표지판。 (서울建築申請)

1秒동안에 數値계산 4억회 가능
英에 超高速 氣象컴퓨터

塗裝技術 세미나 6일부터 3일간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가출男便 외도悲觀
3男妹와 飮毒자살
次男만살아

아파트서 投身자살
50代癌환자 時限생명 비관

致死量 마약섭분
링게르液서 檢出
朴교수夫婦死因

孔夫子와 世界평화
仁民愛物의 社會 건설해야

강연회에서

檀君神話와 宗敎
汎神的조화…人本主義 승화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儒敎典籍전시회。조선조학자들의 귀중한手稿本들을 선보였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저는 이획기적인 아이스크림주걱을 팔고있읍죠"
"아이스크림 세주걱을 한번에 풀수있죠"
"그걸 사겠소!"
"미래에 희망을 주는게 바로 이런 발명품이지"

개 업 인 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7년동안 자동차 구입에 저를 이용해 주신 교포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10월1일부터 고려식품을 인수하여 교포여러분들께 최선의 써비스를 하고저 하오니 전과 다름없이 애용하여주십시오

10월6일(화) 오후4시~9시 사이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부디오셔서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훈 배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CHRISTIE & BLOOR)
전화 : 531-2242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全대통령·트뤼도 1시간15분 單獨會談

「國際信用기구」推進키로

韓·加首相 經協·韓半島정세등 논의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28일 피에르·엘리오트·트뤼도 캐나다수상의 訪韓을 맞아 한차례의 首腦회담과 두차례의 總理회담을 갖고 세계정세및 韓半島정세를 포함한 東北아시아정세와 경제협력증진등 양국의공동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全斗煥 대통령은 이날상오11시30분 트뤼도수상을 맞아 청와대소접견실에서 1시간15분동안 단독회담을 가진데이어 1시간40분동안 오찬을 나누며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와 세계정세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다。全대통령과 트뤼도수상간의 단독회담과 오찬은 대단히 友好的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이날밝혔다。

5年計劃참여·資源공동개발

섬유規制완화·電子 3國에진출도

이에앞서 南悳祐국무총리는 이날상오 중앙청에서 트뤼도수상과 제1차韓·캐나다總理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하오에도 다시 2차 總理회담을 갖고 세계정세와 유엔의 南北문제및 韓·캐나다간의 공동관심사에관해 요담했다。

南총리는 유엔등 모든국제회의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준데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몬트리올에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北傀가 회원임을 이유로 常駐대표부를 설치하려고 기도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표명하면서 이를 不許토록 요청했다。

트뤼도수상은 이에대해 캐나다가 北韓과 외교관계를맺지않고있음을상기시키고『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은 지지하나 소련등 北韓의 동맹국들이 한국을 승인하지않는한 캐나다도 섣불리 北韓을 승인하지않을것』이라고 말하고 ICAO의 北傀常駐대표부 설치불허방침을분명히했다。

양국간의 경제문제와 관련,南총리는 또 섬유류등 通商분야에서 캐나다가 취하고 있는 制限조치에대해 완화해 줄것을 요청하고 한국에대한 캐나다측의 석탄 천연가스등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産선박의 캐나다수입을 요망했다。

트뤼도수상은 이에대해 석탄개발문제는이미협조가이루어지고있고 천연가스분야에서의 협력도 잘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産선박수입문제는 앞으로 10년간 1백여척의선박이필요한만큼 對加선박수출문제는 전망이 밝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밖에 原子力발전소건설문제, 전자교환시설, 캐나다産小麥의 對韓수출문제등도 논의됐는데 한국측은 현재건설중인 月城1號機 원자로를 工期안에 완공될수있도록 협조를 요망했고 캐나다産小麥수입문제는 미국과같은 長期융자조건만 갖추어지면 도입지역을 多邊化할것을 검토하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南총리는 1차회담에서 低所得後進國의 개발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실적인문제를提起하고 이를 해결키위해서는 선진국을 주축으로하는 國際信用保證機構와같은 성질의 기구 創設이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캐나다가 제창하는 에너지基金의 創設에대해 지지와 贊意를 표시했다고 한회담참석자가 밝혔다。

南총리의見解에대해 트뤼도수상은『멕시코頂上회의및 英聯邦수뇌회의에서도 檢討해보도록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南총리는 또1·12및 6·5對北제의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으며 이에대해 트뤼도수상은 적극적인 지지표명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지지를 약속했다고 이회담참석자는 전했다。

트뤼도수상은 이자리에서『한국이 地政學的·安保的어려움에서도 발전하고 있는것은 한국민들의 장래에대한 自信과 국민들의 확고한發展의지,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라고 찬양하고『76년이후 양국간의 交易이 2배로 증진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회담과 오찬에는 한국측에서 南총리, 高建농수산, 朴鳳煥동자, 崔侊洙체신부장관, 李揆現駐캐나다대사, 金東輝외무차관이, 캐나다측에서는 로이·맥라렌通力·鑛山및 資源省政務차관등 6명과 윌리엄·바우어駐韓캐나다대사가 각각 배석했다。

트뤼도수상은 이에앞서 이날상오10시 수행원들과 함께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상오10시30분에는 중앙청 광장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 참석했다。

트뤼도수상은 27일상오11시30분 공식수행원18명、비공식수행원 4명및 취재기자32명등 공식、비공식수행원54명과함께 특별기로 金浦공항에 도착했다。

트뤼도수상은 이날하오 5시 숙소인 호텔新羅에서 在韓캐나다실업인들을 접견하는등 訪韓첫날을 보냈다。

트뤼도수상은 29일 汝矣島 한국방송공사를 시찰하고 空路로 釜山에가 유엔기념묘지를 찾아 참배한다음 月城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다。

트뤼도수상은 慶州고적을 돌아본뒤 29일하오離韓한다。

◇全斗煥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트뤼도캐나다수상을 맞아 악수를 나누며 韓·캐나다간의 友誼를 다지고있다。

北傀승인을 不許

한국産 船舶수입 검토

캐나다

"한국移民 더많이 받겠다"

트뤼도會見

트뤼도 캐나다수상은 28일 한국정부가 南北대화를 위해 제의한 1·12및 6·5제의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한국의 이러한 제의를 침묵또는 거부하고있는 북한측의처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수상은 이날 韓·캐나다교역증진문제에언급『한국은 태평양국가가운데 캐나다교역국으로는 4번째로 큰나라』라고 밝히고 특히 76~80년사이 양국의交易量이 2倍로늘어난것을『고무적인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뤼도수상은 또 캐나다産원자로(캔두型)의 對韓販賣說과 관련,『한국측으로부터 공식요청은 없었으나 캔두型의 優秀性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있으며 한국측으로부터 추가구입요청이 있을경우 우리는 호의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 캐나다産 원자로의 對韓판매의사를 비쳤다。

그는또『한국産衣類및纖物類에대한 수입쿼터조정과 캔두型원자로의 對韓판매와는 직접관련되지않는다』고 밝혔다。

南北韓 모두가 유엔에 동시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트뤼도수상은 현재 4만명선을 넘는 캐나다거주 한국僑民에언급『더많은移民을 바란다』며 캐나다정부의 이민정책은▲캐나다에 가족이있고▲이민신청자의 건강및 교육수준을 중시하는 포인트·시스팀(점수제)을 기반으로한다』고 덧붙였다。

南총리·트뤼도, 晩餐서 歡迎辭·答辭

트뤼도 캐나다수상은 28일하오8시 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南悳祐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韓·캐나다양국은 태평양국가 일원으로서 오랜 정치적유대를 맺어왔으며 한국동란때도 참전한바있다』고 밝히고『우리는 태평양지역의 평화와안정이 우리에게 얼마나중요한지 잘알고있으며 양국간의交易증진은 상호유익하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트뤼도수상은 이날 南悳祐국무총리의 환영사에대한 答辭를 통해『캐나다의 한국에대한 정치적지지는 양국관계의 기본이며 최근 수년간 양국은 각료급을 포함한 각종사절단의 상호방문과 경제위원회의 설립등을통한 상호협력을 광범위하게 증대해 왔다』고 말하고『캐나다人이 한국에 대해 기여한 것은 4백명의 캐나다人이 거주하고있는 月城의 캔두원자로도입이라고 할수있다』고 덧붙였다。

트뤼도수상은 또『한국은 캐나다産 小麥과 석탄뿐만아니라 캔두원자로, 통신장비및 항공기등 캐나다 고급기술의 시장이며 캐나다는 많은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교역상대국』이라면서『앞으로의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징중 하나는 合作투자및 기타협력의 다양화라고 할수있으며 에너지분야도 核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한편 南총리는 환영사를통해『南北대화의 재개를 위한 全斗煥 대통령의 제의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및南北간의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캐나다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보여준 지지와 이해에 깊은 사의를표한다』고 밝혔다。

南총리는『그동안 양국간의 교역은 급격히 증가해 80년에는 7억달러에 이르렀고 금년에는 10억달러 교역달성이 기대된다』면서 양국간의 밀접한 경제협력을강조했다。

美의 迅速配置軍에 대처, 英가담用意

【쿠웨이트28日AP=聯】영국은 미국이 신속배치군을 창설할경우 이에 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마거릿·대처영국수상이 28일 밝혔다。

쿠웨이트를 방문중인 대처수상은 이날 쿠웨이트 국영통신과의 공식회담을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어떠한 국가도 자국혼자만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방위할수없다』고 말하고『지역간의 집단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中共、臺灣에"原油공급 用意"

"國內價로 關稅부과 않겠다"

交易제의

【北京27日AP=聯】중공은27일 중공산석유를 대만측에중공의 국내판매가로 공급할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쌍방간에 중단된 교역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北京방송은 이날 대만측이 중공산원유를 도입한다면 국내시장가격으로 공급할 용의가 있으며 관세도 부과하지않겠다고 제안하고 대만이중공산석유를 도입함으로써 날로 급등하는 국제석유가에영향을 받지않게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방송은 특히 대만과 중공이 서로 인접해있기때문에 쌍방간의 석유수송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잇점이있다고 지적하고 대만정부측은 석유를 공급받는대신 기계류와 농산물을,본토에판매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공은 최근 수년간 대만과의 교역및 통신의 재개등 일련의 관계정상화방안을 제의해 왔으나 대만측은 이를 모조리 거부했는데 중공은辛亥革命70주년에 해당하는 오는10월10일(雙十節)에 즈음해서 다시 일련의 제안을 발표할것으로 보인다。

國會法개정 審議小委구성 지연

活動時限등 異見

국회는 28일 하오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법개정안심의 小委구성과 아울러 小委의 활동時限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小委의 활동時限에 대해 여전한 의견차이를 보여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하고 10월2일 다시 회의를 열어 再論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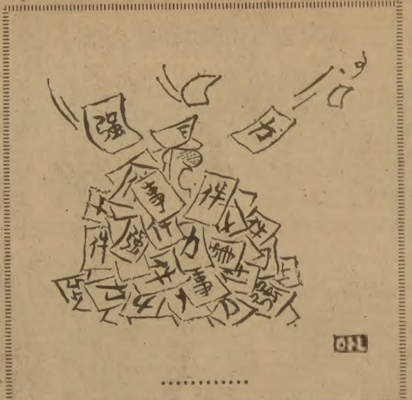
이날회의는 民韓黨과 議政동우회의원들이 不參하여 民正黨과 국민당의원들만 참석한가운데 10분동안 열렸는데 李鍾贊위원장은『오는 10월2일 회의를 속개한다』며 散會를 선포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表決을한다는 방침과 아울러 회의의 開會를 통고했으나 民韓黨측은『民正黨과 국민당이 이유없이 회의장에 1시간30분간 不參하여 회의開會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退場했다。

이날 운영위에 앞서 열린 3黨 간사회의에서는 小委활동 時限과 10월2일 속개문제를 논의했으나 회의결과에 대해 民正黨측은『10월2일 속개키로 양해를 얻었다』民韓黨측은『양해를 한적이 없다』고 각각 엇갈린 발표를 했다。

◇中共의 機動훈련 中共 新華社통신이 제공한 中共기동훈련사진。그러나이통신은 이사진이 언제 어디에서 찍은것이며 무기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지않았다。【北京28日AP電=聯】

社會漫評



地平線

장안의 뭇사내들을 닥치는대로 상관했다는 당대의 바람둥이 於乙宇同이 나라에서 말썽거리가 된것은 成宗11년, 그러니까 1480년의 일이었다。그는 왕실의 붙이인 종친의 아내로서 아래로 남의집 종에서 위로 선비와 당당한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대로 잠자리를 같이했다고한다。朝廷의 중신들도 이 바람둥이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여자라면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뭇사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했던 於乙宇同은 사랑에관한 그야말로 천재라고 할수밖에 없다。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음탕한 엽색행각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섹스개방시대인 지금도 사랑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의 역사상 사랑을 행동한 여자는 누구일까?▼『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너 가는곳 그 어디메냐/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20년대와 30년대의 히트송「死의 찬미」를 부른 소프라노 尹心悳이 목포의 갑부집 유부남과 바다에 뛰어 빠져죽은 것은 1926년8월3일이었다。그는 말하자면 사랑을 위해 몸을 던진 개화기의 스타였던 셈이다。▼그러나 이땅의 여성들이 개화기가 올때까지 사랑을 아예 몰랐다고는 할수없다。뛰어난 교양과 재치와 미모로 이름난 기생 黃眞伊가 아마도 朝鮮왕조를 빛낸 가장 유명한 사랑의 여인이었던것 같다。10년동안 도를 닦은 知足스님을 정복하고、종친인 碧溪守를 유혹하고、당대의 학자 徐敬德을 유혹했다고도한다。주옥같은 시조들이 모두 꿈같은 사랑의 고백들이다。▼그렇긴 하지만「자유로운선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란 우리사회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일반화돼 가고있는 생활양식이다。50년대초 화제가 됐던「자유부인」도 그런 과정의 한표현이라고 할수 있다。특히 최근 며칠동안 부부 동반자살이 잇달아「윤심덕시대」가 되돌아오고 있는듯한 느낌까지 주고있다。저명인사 부부에 이어 신혼의 아내가 남편따라 죽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미남 청년 나르시소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얼굴에 미쳐서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의 신화는 유명한 얘기다。사랑이란 말하자면「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란 뜻이다。그런 사랑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수없는것은 당연한 이치다。「눈먼사랑」이라는 말처럼 철학자 러셀은 그래서『사랑이 인생의 좋은 뭔지언정 주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있는 것이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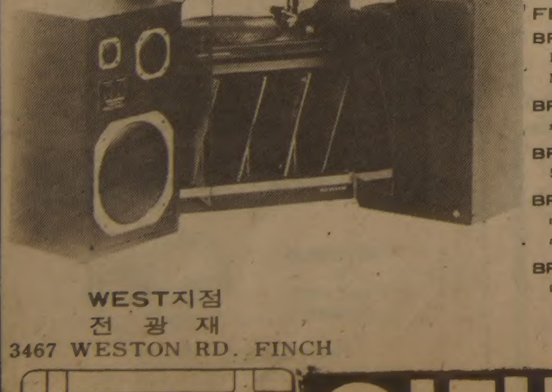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0
은: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TELEFUNKEN
SPECIAL SALE
특별할인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中共, 史上최대 軍事훈련

河北省등 북부山岳지방서

20만명·현대裝備동원

鄧小平등 要人 대거參觀

◇軍 사열하는 鄧小平 中共黨부주석겸 黨군사위주석 鄧小平이 최근 中共의 대규모 군사기동훈련중 北京수비대및 공군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는 모습. 【北京27日AP電送=聯合】

【北京27日AP·UPI=聯合】 중공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이 최근 중공북부지방에서 실시됐다고 北京당국이 27일 발표했다.

인민일보를 비롯한 北京의 주요신문들은 이날 일제히 이 군사훈련에 관한 소식을 1면에 다루면서 이 훈련이『현대식장비』가 동원된『현대적 조건하에서』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이날 중공당부주석이며 중공당중앙군사위주석인 鄧小平이 인민해방군복과 붉은별 한개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한채 다른고위관리들과함께 군을 사열하는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보도들은 이훈련에 北京군구의 육·해·공부대들과 河北省의 일부부대들이 참가했다고만 전했을뿐 이훈련에 동원된 병력숫자·훈련장소·시기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北京의 중공정부및 외교소식통들은 이훈련이 9월초이래 河北省이나 北京북부의 산악지대에서 실시됐으며 동원병력은 10만내지 20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군사훈련과 사열식에는 鄧외에도 黨주석 胡耀邦, 수상 趙紫陽·李先念·華國鋒·王震·韋國淸·方毅·李德生·余秋里·張廷發·耿飈·彭冲·陳慕華·萬里·王任重·宋任窮·楊得志·廖承志·楊尙昆·薄一波·姬鵬飛·黃華등 中共의 요인들이 다수참석했다.

中共1億 饑餓상태 알바니아新聞 보도

【티라나(알바니아)27日AFP=聯合】 중공대륙에는 현재『심각한 경제위기』때문에 1억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3천만명이 실직상태에있다고 알바니아의 日刊 제리 이·포플리트紙가 관영 ATA통신을 인용하여 27일 보도했다.

캄駐屯越軍 일부 철수고려 — 안전조치경우

【파리26日AFP=聯合】 베트남은 타이·캄보디아국경의 안전보장조치가 취해질경우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의 일부철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엔구엔 코·타치 베트남외상이 26일밝혔다.

타치외상은 이날보도된 한 프랑스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와같이 밝히는동시에 중공이 中·베트남국경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캄보디아주둔베트남군의 철수를 유도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앞서 베트남측 제의를 지난7일거부했다고비난했다.

蘇의 國際테러支援 추궁

헤이그 폴란드事態·아프간 占領등

美·蘇2차外相회담

【유엔本部27日AP=聯合】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과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는 지난 23일의 1차회담에 이어 28일 유엔본부의 소련대표부에서 2차 외상회담을 열고 폴란드사태등을비롯 한국제 관심사에 관해 토의했다.

특히 이번 2차외상회담에서는 헤이그장관이 소련의외교정책에 대해 신랄한 추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무성 소식통들은 헤이그장관은 이번회담에서 폴란드사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점령, 소련의 군사력증강, 쿠바군의 앙골라및 이디오피아주둔 그리고 소련의 국제테러행위지원등과 같은 미묘한 문제들을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헤이그장관의 한측근은 소련이

쿠바軍 百萬동원태세

蘇의 波사태 개입따른 美침공 대비

【워싱턴27日AP=聯合】 쿠바의 카를로스·라파엘·로드리게스 국가평의회부의장(부통령격)은 27일 소련의 폴란드사태 개입시 예상되는 미국의 쿠바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1백만명의 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부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폴란드에서 중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도 외국에 대한 개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지적, 쿠바는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폴란드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쿠바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쿠바로서는 전면전에 대비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부의장은 또 어떠한 구실이 됐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경우 이는 전세계를 걷잡을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波勞組 노동자 自律經營權타협案

強硬派 반대철회

바웬사 "弱點 보완"

【그다니스크 28日 UPI聯合=聯合】 폴란드자유노조 제1차 전국대회 2단계회의 2일째인 27일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노동자自律경영권을 둘러싼 노조지도부와 강경파대의원들의 날카로운 대립을 극복하고 노조와 정부의 노동자 自律경영권타협안에 대한 강경파대의원들의지지를 얻어냈다.

약8백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이회의에서 강경파 대의원들은 경영자선출권을 정부와 노조가 함께갖도록한 지난25일의 타협안은 노조지도부가 지난제1단계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써 노동자권익을 공산당에 팔아먹은 처사라고 레흐·바웬사가 이끄는 노조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했었다.

이에대해 레흐·바웬사는『自律경영권에 대한 노조와 정부의 타협은 자유노조와폴란드를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강조하고 이는 國益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바웬사는 이어『이번 타협안의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장기적안목에서 이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노조자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할것』이라고경고했다.

자유노조대변인 야누즈·오니츠키에비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회의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회에서통과된 노동자 自治法안을 거부하지않는것이었으며 회의장의 여론은 이법안은 실제로 운용해봐서 실현을 거쳐야한다는데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회의가 自治법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노조자체의와해는방지해야하는 공동인식과 지혜와 상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한다는 회의장 분위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이 수락되었다고 밝혔다.

波경찰 勞組支部결성 요청

전국대회에 書翰

【바르샤바26日AFP=聯合】 일단의 폴란드경찰은 26일 자유노조 제2단계 전국대회에 서한을 보내 자신들의 노조지부결성에 지원을요청했다.

자유노조는 이에 대한 회답을 통해 이들을 전국대회에 참석토록 초청했다.

폴란드정부는 아직 경찰노조결성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이들 경찰은 이 서한에서 자신들이 아닌 다른사람들의 이익을위해 노동대중을 탄압하는 맹목적도구가 되고싶지않다고밝히고 그러나 폴란드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동맹을 존중할것이라고 다짐했다.

폴란드 知識人들 「反體制」클럽 結成

【그다니스크27日AFP=聯合】 자유노조조합원과 지식인·언론인등 일단의 폴란드인들은 ▲자유선거의 실시 ▲지역 노동자의 자율경영참여 ▲폴란드의「경제적 주권」확립을 목표로한 새로운 클럽을 결성했다고 27일 이곳 소식통들이 말했다.

「자주를 위한 클럽」이라는 이름의 이 새 자유화운동 추진단체는『인간의 자유와 국가주권을 위한 시민행동의 한형태』로규정될수있을것이라고이 소식통들이설명했다.

◇波勞組대회장의 바웬사 폴란드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右端)가 27일 그다니스크市 올리비아경기장에서 속개된 自由勞組 제1차전국대회 2단계회의 이틀째회의에 참석한 모습. 【그다니스크(폴란드)27日UPI電送=聯合】

에콰도르, 韓國등에 石油판매 增大원해

【키토26日로이터=聯合】 에콰도르는 한국등 극동국가들에 대한 자국산석유판매의 증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페국영석유공사의 요르게·파레야총재가 26일 밝혔다.

트뤼도首相訪韓 스케치

어려움속發展 크게感銘

◇訪韓이틀째를 맞은 트뤼도캐나다수상이 28일 상오 中央廳광장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 참석, 南悳祐국무총리의 영접을 받고있다.

○…감정이 풍부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숱한 話題를 뿌리고 있는 캐나다의 피에르·엘리어트·트뤼도수상은 訪韓첫날을 호텔新羅에서 보낸뒤 이튿날인 28일에는 환영식참석, 청와대예방, 總理회담, 만찬참석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캐나다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트뤼도수상은 28일상오 중앙청에서 열린 환영식에참석, 따뜻한 환영을받았다.

이날 상오10시30분 中央廳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은 南悳祐국무총리, 金殷夏국회부의장과 申秉鉉부총리등관계장관,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 外務委소속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진행됐다.

이날 환영식에 캐나다측에선 로이·맥크라렌의원, 바우어駐韓캐나다대사등공식수행원이 참석했고 파란조페주한외교단장(주한印度대사)과 英國,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지아등 英聯邦國대사, 美國, 프랑스대사등도 參席했다.

환영식에서 트뤼도수상과 南총리는 양국국가연주에 이어 도보로 三軍의장대를 사열하고 花童으로부터 장미꽃다발을 증정받았다. 트뤼도수상은 이어 李相淵서울시제1부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고 한국과캐나다양국카메라맨들을 위해 포즈를취하기도.

트뤼도수상은 환영식이 끝나고 南총리와 나란히 中央廳총리집무실로 향했다.

스코필드博士 墓所에 분향 遺德기리며

國立墓地安葬은 韓·加友誼 굳게하는일

韓屋서 붙고기등 들며 "맛있게먹었다"

經濟人들은 "한국과 비지네스 즐거워"

○…트뤼도 수상은 환영식에앞서 상오10시 銅雀洞국립묘지에 도착, 李光魯 중장의 영접을받고 顯忠門에 헌화, 焚香했다.

이어 트뤼도수상은 李現 駐캐나다대사의 안내로 애국지사묘역에 있는 抗日운동 캐나다인인 스코필드박사의 묘소를찾아 분향.

트뤼도수상은 스코필드박사의 墓를 한바퀴둘러보고 비문을들여다보는등 해외에묻힌 캐나다人의 遺德을 기렸다.

트뤼도수상은 李대사에게『한국정부가 스코필드박사를 국립묘지에 安葬케하고 관리를 잘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謝意를 표시하고『이러한 것이 한국과 캐나다의 友誼를 돈독히하는일』이라고 말하기도.

○…트뤼도수상은 이날 상오 中央廳에서 열린 1차韓·캐나다수상회담에서『在韓캐나다 경제인들과 만나 이야기를나눴는데 모두들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하고『한국이 어려움속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감명깊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참석자가 傳言.

트뤼도수상은 이날 숙소인 신라호텔방에 놓아둔 장미꽃 한송이를 가슴에달고 회담에 임했는데 27일 訪韓할때도 꽃을 달고 공항에 도착.

○…트뤼도수상의숙소인 호텔新羅의 방은 호텔20층에 아담하게 꾸며진 韓室。

호텔에 도착한직후 트뤼도수상은 코리안슈트와 로열슈트중 마음에드는 방을 선택하도록하라는 제의에 2016호 韓室을 택했다는것。

거실과 침실로 나뉜 18평의 트뤼도수상 숙소는 자개롱과 자개문갑, 자개교자상, 신선도병풍으로 장식됐으며 침실과 거실엔 以堂 金殷鎬화백의「시집가는날」과 心山 盧壽鉉의 山水圖가 운치를 살리고 있었다.

◇국립묘지를 참배, 헌화한뒤 분향하고있는 트뤼도 캐나다수상。

호텔방 장미꽃달고 會議장소에

숙소에든 트뤼도수상은 완자무늬의 창틀과 동양화가 특히 아름답다며 한동안 감상했다는것.

트뤼도수상의 이날 아침식사는 순한국식이었다. 잣죽에 불고기, 갈비, 전, 김치등을 햅쌀밥과 곁들였는데 김치와 밥을 특히 많이 들고 룸서비스에게『참으로 맛있게 들었다』면서 원더풀을 연발。

트뤼도수상은 특히 호텔정문처마의 線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트뤼도수상은 이에 앞서 일요일인 27일 상오 11시30분 특별기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南총리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트뤼도수상은 이날 南총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붉은 카피트가 깔린 도열병사이를 지나 영접나온 崔侊洙체신 金東輝 외무차관 파란조페駐韓외교사절단장등과 차례로 악수를나눴다. 【河長春기자】

美 小冊子마련

蘇, 나토겨냥 525개核배치

地上軍 67년후 30개師團증가

【워싱턴27日UPI·聯合=聯合】 미국방성은27일 서방이 소련으로부터의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레이건행정부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련군사력現況을 상세히 밝힌 소책자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성대변인은『소련군사력』이란 제하의 99페이지짜리 소책자에는 천연색도표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인쇄소에서 인쇄된 이 책자가 일반국민들에게 판매될것이나 가격이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즈紙는 이날 와인버거장관이 아마도오는29일기자회견에서 이소책자를 공개할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小冊子가 사상처음으로 소련의 총·장거리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되어있는 대략적위치가 표시된 地圖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정보는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밝힌 이 小冊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지상군은 지난1967년이래 30개 사단이늘어 현재 총1백80개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은 5만대의 탱크와 2만문의 이포및 즉각출동대세를 갖춘 5천2백대이상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동구지역에만도 현재 3천5백대 이상의 소련및 바르샤바동맹국전술폭격기및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소련해군은, 1백80척의 핵추진잠수함을 포함, 총3백77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해군잠수함은 1백15척에 불과하다.

▲소련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을 겨냥하여 5백25개의 핵탄두를 장착한 SS20미사일 1백75기를 배치하고 있으나 미국과 그 서구맹방들은 아직도 새로운 미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의 실전배치문제를 협의하고있다.

▲소련은 현재 정확도와 폭발력향상에 역점을둔 핵전력현대화작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7천개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다.

釜山水産대학장에 李秉畯씨任命발령

정부는 28일 釜山水産대학장에 李秉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장을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에 具本錫창덕여고 교장을 29일자로 발령했다.

트뤼도 來韓과 對加 移民진출

頂上회담이나 總理회담은 보통 단독對坐를 定石으로 한다. 따라서 단독對坐한 본인들이 緘口하는한 합의내용을 취재하기란 어려울 뿐더러 取材源이 될수있는 頂上이나 총리 본인에게 접근하는것마저도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트뤼도 캐나다수상이 3일간의 公式訪韓을 마치고 29일하오 離韓한다. 청와대를 예방, 全斗煥 대통령과 가진 사실상의 頂上회담이나 南悳祐국무총리와 가진 총리회담내용역시 캐내기가 벅차다. 더구나 이번 회담은 예의 공동성명마저 생략됐다.

이러한 不便속에서도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하다. 우선 폭발적인 우리의 인구팽창추세와 관련,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僑民들에게 캐나다야말로 둘도없는 安息處가 되기때문이다. 게다가 해외이민이 개방됨에 따라 캐나다는 이민대상국으로 다시 脚光을 받고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5만여명의 우리僑民이 살고있다. 그러나 이가운데 3만여명은 家族초청과 永住權취득에의한 소위 家族移民이며 나머지 2만여명이 기술移民자격으로 保社部移住局을 통해 건너갔다.

미국이 한국移民에 매년 쿼터를 年2만명線으로 제한하고있는데 반해 캐나다는 技術移民만을 허용하고있다. 62년 정부의 移住法이 발효된 이후 매년 1천여명의 기술자들이 캐나다에 移住, 밴쿠버, 터론토, 몬트리올, 오타와지역에 定着해 왔다.

移民1백년이 넘는 미국과는 비교할수없으나 미래의 移民후보지로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며 그 구체적인 매듭의 실마리를 트뤼도수상의 이번 訪韓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이번 首腦회담 또는 總理회담을 통해 移民문제가 거론됐다는 확증이나 示唆는 없다. 풍부한 資源보유국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立地조건역시 우리에게는 移民못지않게 중차대한 관심사다.

문제는 이번頂上또는 총리회담을 통해 양국頂上이 이 문제에 관해 얼마만큼의 讓步와 이해에 도달했나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런 알맹이를 구체적으로 文案化하거나 공식발표를 생략할수 있는 이번 회담의 스타일에 새삼 잘됐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韓·캐나다간의 수뇌회담과 總理회담을 계기로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移民문호가 좀더 활짝 트였으면 하는 기대도 바로 이런 까닭에 있는것이다. 【政治部 金勝雄기자】

메아리

9·28의 깃발

그해 9월26일의 태양이 서산에 설핏할무렵까지만 해도 우리 해병대와 미국해병대가 확보했던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못되었다.

한국해병제2대대는 본부를 조선호텔로 정하고 내일의 공격을 위한 작전회의에 여념이 없는데 북괴군의 준동은 눈에뜨이지 않고 오직 포격으로 치솟는 불길이 하늘을 찌를듯 했다. 불길은 번화가인 명동 쪽에서 가장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27일 새벽3시 아직 날이 새기까지는 멀었으나 둘레는 훤하였다.

해병2대대 6중대 제1소대장 박소위는 소대원을인솔하고 세종로로 진출하고있었다. 북괴군이 쌓은 모래주머니 그늘에서는 아직도 총격이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박소위는 반도호텔 종업원을 시켜서 간신히찾아낸 대형태극기를 허리춤에감고 중앙청 꼭대기에 우리손으로 태극기를 꽂고 수도서울을 되찾은 감격을 전세계에 알려야한다는 일념밖에 없다.

수류탄 공격을 가하며 돌격을 거듭하여 2명의 북괴군을 넘어뜨리고 적이 구축한 방위진을 돌파하는데 드디어 성공—。

그때 중앙청은 전날의 전투로 붉은 불이 그대로 타오르고 있어 검은연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속에 숨어있던 북괴병들도 자욱한 연막때문에 눈에 뜨이지 않았다.

계속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중앙청으로 쳐들어갔으나 연기와 열기로 눈은 제대로 뜰수가 없고 숨쉬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간신히 돔으로 올라갈수있는 쇠사다리를 찾았으나 그 마저 포격으로 파괴된채 쓸모가 없게 된것이었다.

기를 쓰고 서로가 서로를 부축 하면서 부서진 쇠사다리를 이용해서 돔 꼭대기에 오르는데는성공했으나 밖으로 빠져나갈 창이 너무 좁아서 어찌 할수가없어 하는수없이 박소대장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태극기를 막대에 비끌어매고 창틈에서 밖으로 내밀고는 힘껏 내 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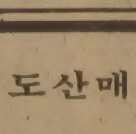
이때가 오전6시10분, 서울을 잃은지 89일만에 중앙청에 태극기가 나부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28일 서울은 완전히 수복되고 이날 아침10시 시내 모든 교회의 종은 그칠사이 없이 언제까지나 울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 439-1335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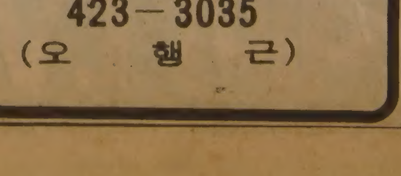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나의 이력서

윤치영

<題字·尹致暎>

⑸⑺

南北協商의 奸計

48년 4월19일, 金九선생과 金奎植박사등 南北협상을 주장한 인사들이 北傀가 甘言利說로제의한 南北협상을 하러 平壤으로 갔다。때는 유엔 韓委議長이 유엔에 南韓단독 선거안을 보고하고 유엔小總會가 한국內 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한 지 2개월만이다。

北行소식이 전해지자 李承晩박사는『白凡, 白凡!』하며 안타까운듯 허공에 대고 외치고는 눈을 감고 한없이 장탄식을 했다。주름진 얼굴엔 서글프고 괴로운 표정이 역연했다。

『독립의 영웅이, 애국에 불타는 그가 왜지금 돌이키지 못할 誤判을 하고있단 말인가。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가…理想論!』金九선생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金九선생 金奎植박사등은 平壤에서 열린는 이른바『南北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러 간 것이다。金九선생은 앞서 그가 제의했던 南北지도자회담을 독표로 北에 갔지만 결국 허울뿐인 北의꼭둑각시 잔치에속아서돌아왔다。

金九선생이 北에 가려할 때 京橋莊일대엔 우익청년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말라고 외치며 저지示威를 했다。

金九선생은 군중들에게『민족통일을 위해선 어디든지 가겠다…』며 平壤行강행을 밝혔다。그러나 金九선생은 아들 金信과 비서 鮮于鎭을 대동하고 平壤을 향했다。

南과 北, 누가 먼저 민족의 분단을 自招했는가。

南韓에선 建國의 예비구조는커녕 左右派, 그리고 민족진영간에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혼란에

白凡 統一일념으로 反對불구 平壤에
赤化위한 輿論展示에 허탕치고 歸京

빠져있을때 과연 北에선 무엇을 했는가。몇가지 사실만 들어보자。

해방이 된지 불과 5일뒤 北韓에선 이미『人民委員會』를 구성했다。정권의 예비레같은 것이었다。

소련은 8월말에 北韓전역을 점령했다。소련은 직계親蘇派 金聖柱를 抗日勇將인 金日成으로 僞裝시켜순식간에 공산정권수립의 체제를 갖추었다。

해방을 맞은 다음달인 9월엔 國內派공산당지도자인 玄俊爀을 암살했다。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정부수립을 위해선 李承晩, 金九등 臨政系민족주의자들과 손잡아야한다』고 주장한 玄俊爀의 암살은 南北협상, 左右협상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상징이었다。민족의 목숨과 피를 빼앗은 소위『계급투쟁』을 통한 絶對赤化가 목적이지 해방직후부터 협상이란것을 비웃은 그들이다。

해방이듬해에 접어들자마자 金日成은 민족진영의 지도자인 曺晩植선생을 체포하고 민족주의자들을 탄압, 숙청했다。46년2월 8일엔 소위『北朝鮮임시인민위원회』를만들어 사실상의 공산정권을 세웠다。

이 시기에 南韓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金九선생이 48년4월 京橋莊 (현고려병원) 2층 베란다에서 平壤行을 만류하는 군중들에게 연설하고있다。

그런뒤 48년 2월6일 北은 헌법을 草案하고 人民軍창설을 공표했으며 다음날엔 유엔韓委의 入北을 거부해버렸다。

南北협상이란 이런 상황속에서나왔다。北은 이미 赤化통일의 방안을 세운뒤 지도자회의라는 것을 열자고해 南北협상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국제여론에 전시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저들은 두 金씨등을 앉혀놓고 자신들의 붉은연설만 늘어놓다가 끝냈다。오늘날 北傀가 떠드는 大民族會議를 하는것도 과거 南北협상의 再版인것이다。

결국 北으로갔던 일행은 허망하게 돌아왔다。北의 술책에 이용만 당한 셈이다。金奎植박사는 2차회의엔 참석하지도 않았다。

南北협상이란 참 캄캄한 얘기였다。그저 이상론에 그칠 뿐이었다。

유엔韓委議長인 메논은 한국에왔을때 남북협상론을 주장한 인사들을 두고『공산주의자의 속성을 모르는 답답한 얘기』라고 탄식을 했다。소련대사를 지낸 메논은 공산주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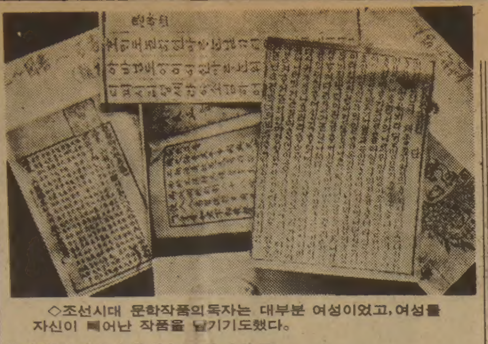
메논은 한국의 실정을 파악하고 간 뒤 유엔에 보고, 결국 유엔에서「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하도록 했다。

李박사가「가능한 지역에서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외친 것은 앞날을 내다본 정치가로서의 炯眼이었다。

당시「南北협상」과 그 결과에대해 나는 기가 막혀 서글픈 생각뿐이었다。이젠 지나간 숱한 역사의 얘기, 또 선배들에대한 더이상의 얘기는 인간(個人的인 사고라는 오해도 있을것 같고해서 말을삼가는 바이다。

李박사는 그당시『역사는 天時、地利、人和의 3合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국가여건에 유리한게 하나도 없으니 오로지 이 3合으로 나라를 일으켜야한다는 생각이었다。

李박사는 이땅에서 東歐의 운명을 막아야한다는 생각이었다。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등東歐를 보라。赤化뒤 그나라들의 민족지도자들은 모조리 숙청되거나 파멸의 길로갔다。협상이란 허울뿐이었다。나라가 통일되는데는 전제가 있어야한다。民權이 있고 民生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통일되어야하는것이다。



◇조선시대 문학작품의독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여성들 자신이 빼어난 작품을 남기기도했다。

朝鮮朝文學은 女性이 키웠나

女流文學人會서 金一根교수 주장
거의가 女性讀者…發展기여
한글保護·애용자로도 貢獻
內房歌辭는 世界특유의 獨創的作品

『朝鮮朝 여류문학은 한국문학의 진정한 胎盤』이라는 평가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한국여류문학인회가 27일 南漢山城에서 가진 문학모임에서 金一根교수(建大)는 주제강연「朝鮮女流文學의 再照明」을 통해『조선문학은 讀者的 측면에서 볼 때 女人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女人들에 의해 國文學이 크게 발전한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朝鮮文學을 訓民正音史的 측면에서 살필 때 여성은 한글의 保母로서、한글의 애용자로서、또 管理者로서 한글을 크게 발전시켰다。그 대표적인 실례로 黃眞伊가쓴 時調작품들、許蘭雪軒이 쓴 歌辭들、松江의 慈堂과 仁穆大妃및 張夫人등이 쓴 手記와 書簡、「癸丑日記」「意幽堂日記」등의 日記類、「閑中錄」「昭顯王后傳」등의 기록、「祭針文」「閑中七友爭論記」등의 隨筆류들을 들 수 있다。

金一根교수는『이같은 한글작품들의 수준은 빼어난것으로、黃眞伊의 時調 1首는 양반 남성들이 지은 몇百首의 작품을 質的으로 능가하는 드높은 향기와 예술성을 지닌 작품들이며、仁穆大妃가 남긴 서간과 記事는 한국수필의 첫 장을 장식하는 작품』이라고 평했다。특히 嶺南지방을 비롯 거의 전국에 퍼졌던 內房歌辭는 조선여인들의「恨의 카타르시스劑」구실을 한 독창적인 성격의 文學으로 東西洋을 통틀어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文學이 生活化된 文學現象으로 꼽힌다。한글소설「장끼傳」과「李春風傳」은 소재와 문장으로 보아 여성이 썼을 가능성이 높은 소설로 연구되곤 한다。

한글(訓民正音)의 産室은 王宮이었으나 그것을 보호육성한 계층은 士女、庶民여성、宮女、妃嬪등 여러계층의 여성이었다。

여성들의 한글보호 육성은「洪吉童傳」이라는 大作을 낳게하는 상황을 만든 胎盤이 되어주었다。金교수는 조선여인들은 조선문학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자들로서 또 갖가지 종류의 한글 문학을 낳은 작가들로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의 功勞者로크게 평가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리고『조선여인들의 女流文學은 後代의 現代文學전체에까지 그 餘勢를 미치고 있는것』이라고 말하고『國文學界에서도 조선의 여류문학이 한국문학의 진정한 母體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맺었다。【禹桂淑기자】

大使등 17명異動

總領事 4 명·局長 2 명 포함

西 獨 宋光楨 필리핀 李楠基 우루과이 張潤傑씨
수리남 文熙哲 카타르 金相圭 쿠웨이트 申貞燮씨
세네갈 張明貫 요르단 金在晟 니카라과 金在勳씨

정부는 28일 宋光楨駐필리핀대사를 西獨대사로 轉補하고 金在晟외무부정보문화국장을 駐요르단대사에、張明貫아프리카局長을 駐세네갈대사에 각각 승진임명하는등 大使級13명과 總領事級 4명등 在外공관장 17명과 외무부局長級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또 張潤傑駐시애틀총영사를 駐우루과이대사로、申貞燮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駐쿠웨이트대사로、盧永璨駐세네갈대사는 샌프란시스코총영사로、李文洙駐수리남대사는 보스턴總領事로 각각 轉補했다。

이밖에 李楠基 駐우루과이 대사는 駐필리핀대사로、文熙哲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駐수리남대사로 轉補됐으며 金在勳駐브라질公使는 駐니카라과대사로、李志哲駐보스턴 영사는 駐고오베(神戶)총영사로、尹榮燁駐인도네시아公使는 駐오오사까총영사로 각각 승진임명됐다。

李玫容駐西獨대사와 金仁와 駐쿠웨이트 대사、徐京錫駐카타르대사、蘇鎭轍 駐요르단 대사는 이날자로 본부대사로 轉補됐으며 馬鍾 駐삿뽀로 총영사와 金基濟駐고오베총영사도 본부근무명을 받았다。

한편 외무부정보문화국장에는 金庚哲통상국장이、아프리카국장에는 洪淳瑛외교안보연구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宋光楨대사 ◇李楠基대사 ◇文熙哲대사 ◇張潤傑대사 ◇申貞燮대사 ◇金在勳대사 ◇金相圭대사 ◇張明貫대사 ◇金在晟대사 ◇盧永璨총영사 ◇李文洙총영사 ◇尹榮燁총영사 ◇李志哲총영사

신임공관장들의 略歷은 다음과같다。

◇宋光楨駐西獨대사▲서울출신·56세▲서울大法大卒▲외무부邦交局長▲외무부기획관리실장▲駐和蘭·駐베네수엘라·駐필리핀대사

◇李楠基駐필리핀대사▲大邱출신·50세▲서울大文理大卒▲駐함부르크총영사▲외무부기획관리실장▲駐과테말라대사▲駐우루과이대사

◇文熙哲駐수리남대사▲서울출신·56세▲國民大·美조지타운大修學▲駐사웅파울루총영사·駐쿠웨이트통상대표부대사▲외교안보연구원연구위원

◇張潤傑駐우루과이대사▲서울출신·58세▲서울大文理大卒▲嶺南化學이사▲駐시애틀총영사

◇申貞燮駐쿠웨이트대사▲釜山출신·51세▲서울大法大卒▲亞洲局長▲駐제네바公使▲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

◇金在勳駐니카라과대사▲晉州출신·49세▲外大卒▲駐멕시코참사관▲중앙정보부副局長▲駐브라질公使

◇金相圭駐카타르대사▲서울출신·55세▲국민大·美미시간大學院卒▲駐에콰도르·駐페루참사관▲외교안보연구원연구관

◇張明貫駐세네갈대사▲全州출신·50세▲서울大法大卒▲駐佛참사관▲아프리카局長

◇金在晟駐요르단대사▲安東출신·46세▲延大卒▲駐英·駐가나참사관▲정보문화국장

◇李文洙駐보스턴총영사▲서울출신·55세▲延大卒▲駐日참사관▲駐버마·駐이란公使▲駐수리남대사

◇尹榮燁駐오오사까총영사▲서울출신·49세▲陸士卒▲中央情報部부국장▲駐인도네시아公使

◇盧永璨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서울출신·49세▲서울大文理大卒▲駐멕시코·駐佛참사관▲阿中東局長▲駐세네갈대사

◇李志哲駐고오베총영사▲國立臺灣大·서울大행정대학원卒▲駐스페인참사관▲駐中참사관▲駐보스턴영사

未登記所有權이전 할수있게
民韓、不動産登記措置法개정안 제출

民韓黨은 28일 不動産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林鍾基의원등 당소속의원 82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소유권 보존登記가 되지 않은 부동산중 臺帳상 地籍法의 기재가되지 않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讓受하거나 상속받은자는 소유권등재신청을 할수있도록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국제原子力기구에 한국、理事國被選

한국은 지난21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수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25차총회에서 극동지역을 대표하는 理事國에被選됐다고 외무부가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蒙古를 47대29표로 누르고 이사국이 됐는데 任期는 83년 9월까지다。

한국은 58년、66년、74년、77년에 이어 이번에 5번째로 理事國이됐다。

技能大會 선수단 大田市街 행진

【大田=金周彦기자】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39개 종목에 대한 경기를 모두 마친 전국11개市道선수 7백94명은 28일상오 수많은 大田시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시가행진을 벌인데 이어 하오에는 新灘津연초제조창과 大德연구단지를 각각 돌아보았다。

선수들은 이날상오10시 西大田로터리를 출발、도청—大田상공회의소앞—木尺橋—大田驛광장까지 1·5㎞를 30분간 도보행진한뒤 대기중이던 15대의 버스에 분승、산업시찰길에 올랐다。

엘살바도르經濟危機
內戰1年지속으로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UPI綜合=聯合】엘살바도르의 1년동안 끌어온 내전은 이 나라 경제를 강타했으며 자원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도덕률을 망가뜨렸다。

정부관리들은 수술중인 환자까지 살해하는 게릴라들의 준동에 대비한 등화관제로 공장이 문을닫고 수도관이 끊겼으며 의약품과 식품들이 변질되었다고 말한다。관리들은『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반도들의 비인도적 무자비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5譜 77～100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鄭 壽 鉉<1敗>
黑(6段) 徐 能 旭<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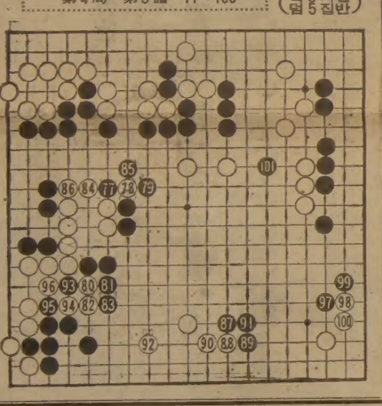
鄭4단은 현재 名人戰외로 國手戰 國棋戰본선에서 활약하고있다。전적은 중간정도로서 그다지 탐탁지않지만、대학에 재학중(漢陽大學英文科3年)인 처지를 생각하면 어쨌든대견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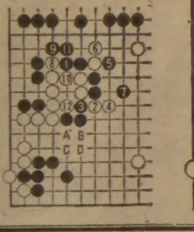
보면 언제나 한아름이나되는 책을 힘겹게 들고다닌다。학교공부도 하랴 바둑연구도하랴、잠시도 한가한틈이 없을터이지만 그렇게해서 전강이유지되는 모양이니 강철의사나이라 할만하다。

그건 그렇다하고 당장 급한것은 黑77을당한 좌변白의 생사문제이다。하지만 이白은 쌈지를 뗐을뿐이지 죽을말은 아니었다。실전대로 白78에 쫌은다음 80、82로 한집을 장만하고 86까지 완생이다。

黑79로 굳이잡으려 하면 참고도 黑1인데 이것은 白2이하 12까지로 살아서 실전보에 비하여 黑이 불리한 결과가 된다。야래쪽에는 白「A」이하 黑「D」즉、실전보의 80、82로 한집은 확보되어있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白이 어떻게 살아야했는가에 문제가 있었다。일부 기사간에서는『白84로 일단 85자리에 뻗어 강력히 반발해야 되잖느냐』며 黑에게 85의 빵따냄을 허락하고 게다가 87이하 91、다시97、99를 당한끝에 101의 급소를 찔린것이 너무 아팠다는 중론이었던 것이다。그러면 黑101에대해 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一凡】

白、또다시 難局초래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지난주에 바이얼린 연주회를 가졌죠"

"파가니니 변주곡을 연주하는데 줄이 하나 끊어졌지 뭐요"

"보나마나 청중들이 실망했겠구나"

"아뇨…그때가 바로 제가 최대의 박수를 받은때였어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전국 시도대표 기능선수 7백94명은 28일 상오10시 大田시가에서퍼레이드를벌여 한층 축제분위기를 높였다。【大田=李基龍기자찍음】

모든 종이 위의 生 <213>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 불다⑭

나는 잠자코 기다렸다。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도 궁금했고、또 그가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도 나는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말하지 않았을뿐더러 내가 지적해주고 싶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는 매우 둔감한 눈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종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무지 나는 판단할수가 없어。부탁하고 싶을뿐이야。제발 내 앞에 보이지 말아달라구。괴로와、괴로와죽겠어』

『도망치시면 되잖아요。정릉에서처럼。그리고 나서 여기 저기 소문이나 내시면 되잖아요?』

『소문?』

『J씨한테서 들었어요』

『J가?그친구가 뭘 알아서?뭐라고 들었어?난 아무에게도 말한일이 없는데…』

그는 기억을 돌이키는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맹세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한일이 없어。없다구』

『그럼 J씨가 정릉에서당신에게 유령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유령?』

『여자의 원귀라고도 했어요。하지만 J씨는 그게유령이나 원귀일수는 없고、이건 J씨가 한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과거에 당신이 못되게 굴었던 어떤여자가 복수의 감정으로…아니、정신의 밸런스를 잃고 당신이 자는방에 밤마다 나체로 나타난다는거예요』

말하고 나서 나는 조금 웃었다。다른 사람들의 입에의해서 객관화(客觀化)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따금씩 나를 웃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고、괴로운듯 짧게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다。

『와이프군。와이프한테 밖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여자는 얼굴이 넓어。여기 저기 쓸데없이 전화질 하기도 좋아하고。J나 또 누구에겐가 전화를 했을수도 있고』

나는 부인을 비방하는 듯한 그의 말에 동조하기가 싫어 입을 다물었다。내가 그의 우산 안에서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의 부인 역시 그의 우산 안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대충 윤곽이 잡히는군。진원지는 와이프야。산장을 철수하면서 꼬치꼬치 캐어묻는 그 여자한테、간밤에 유령이 나타났다、여잔데 나체로 내 옆에 누워 있는 걸 호령 호령해서 쫓아냈다…』

『피이、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겠지。그런일이 있을수 있느냐고。혹시 그이한테 그럴만한 어떤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일이 있느냐고。내가 서툴렀어。J가 또 뭐 다른 말은 안합디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누군가한테서 얼핏 들었는데、미스터 한을만나면 확인해본다면서、전망증때문에 자꾸만 잊어먹곤 한다구요』

『확인 좋아하네』

그는 내 앞에서 빙그르 반바퀴 돌며 내 옆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 친군 전망증이 아니라 석두요。시라고 거지 발싸개 같은 걸 끄적거리면서 시인입네 빵모자나 눌러쓰고 다니는 꼴이라니、내참 티꺼워서』

신앙대부흥회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의 정신생활도 이 계절과 함께 더욱 무르익어야겠읍니다.

금번 우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경말씀을 중심으로한 대 부흥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조병서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에 넘치는 목사이십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유성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계의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1980년대를 안전히 넘길지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엄청납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마련한 이 부흥회 자리에 오셔서 불안에 가득찬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확신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 박 형 종
수석장로 : 노 봉 우 드림

강사 : 조병서 목사님

기 간 : 1981년10월16일～25일
(매일밤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Bathurst St.의 동편)
전 화 : 630－4284
강 사 : 조병서 목사(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의 목사님)
현 재 : L. A. 중앙교회 담임
※매일 밤 천연색 건강 영화가 상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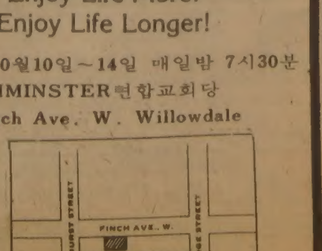
총연제 : 사 랑 의 하나님

10월16일(금) 역사속의 하나님
10월17일(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것이 옳은가
10월18일(일) 노아 홍수의 멸망과 오늘
10월19일(월) 이스라엘과 출애급 그리고 우리
10월20일(화) 이스라엘과 아랍의 투쟁
10월21일(수)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10월23일(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우물
10월24일(토) 내가 원하는 사랑
10월25일(일) 행복한 가정

5일 금연학교

SMOKERS!
Enjoy Life More!
Enjoy Life Longer!

기 간 : 1981년10월10일～14일 매일밤 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토론토한인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 교회

2冠王 慶北, 心石에 낙승

신예 浦鐵工, 冲岩에 憤淚
11회 홈스틸허용 逆轉敗

창단 7개월째인 신예浦鐵工高의 분투에 강호冲岩高가 식은땀을 흘렸다。
冲岩高는 28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황금사자기쟁탈 제35회 전국고교야구 3일째 2회전경기에서 창단초년의 浦鐵工4번타자 鄭成龍에게 선제솔로 호머를 얻어맞는등 5회까지 5－1로 크게리드 당하다가 6회말 4안타로 3점·8회말 4안타로 1점을 만회 동점을 이루었다。
冲岩은 연장 11회말데드볼·연속 2포볼로 맞은 1死만루의 찬스에서 3루주자金昌植이 浦鐵工 투수 金貞洙의 높은 투구를틈타 재치있게 홈스틸·6－5의 역전결승점을올렸다。
청룡기·봉황대기를 석권, 3관왕을 노리는 慶北高는 좌완에이스 成埈이 손부상으로 결장했으나 3루를지키던 우완洪淳浩가 9회동안 산발 3안타·2포볼·1실점만을 허용하는 호투에힘입어 心石高를 5－1로 물리치고 역시 8강에진출, 지난해 우승팀 善隣商－花郎기우승팀 信一高승자와 4강 진출권을 가리게됐다。
明知高는 이에앞서 벌어진 1회전 경기에서 마운드가약한 馬山商高를 8안타·4포볼·6도루로 공략, 7－0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어 2회전에 진출했다。

◇제3일 전적
▲1회전
명지고 000 112 3 ‖7
마산상 000 000 0 ‖0
〈7회콜드게임〉

▲2회전
경북고 002 002 010 ‖5
심석고 000 000 001 ‖1
포철공 020 300 000 00 ‖5
충암고 100 003 011 01 ‖6
〈11회연장〉
▲홈런＝鄭成龍(2회·포철공)

◇제2일전적
▲1회전
광주진흥고 100 012 000 ‖4
강릉고 000 000 100 ‖1
인천고 000 000 00 ‖0
대구고 040 010 02 ‖7
〈8회콜드게임〉
동산고 200 000 000 ‖2
세광고 000 003 00× ‖3

新羅미술 대상전

제3회 新羅미술 대상전이 10월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신라면 文化會館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에는 동서양화、조각、공예、서예등 5개부문이 선보인다。

한국최초의 예멘 사진전
시바女王 유적지등 90點

한국최초로 공개되는 예멘 사진전이 10월4일까지 秘苑앞 三俠빌딩1층에서 열린다。
이 사진전은 北예멘에 처음으로 진출한 三俠企業이 3년간 현지에서 직접촬영한 시바여왕의 유적지、모래태풍과 사막의 江등 90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經理團, 第一銀 대파
丁震鎬 홈런등 17안타로

實業야구 2차리그

經理團이 丁震鎬의 3회말 선제2점호머를 비롯한 17안타로 第一銀의 4투수를 맹타, 11－4로 대승을 거두고 5승1패로 실업야구 후기2차리그에서 商業銀과 공동선두를 달리고있다。
經理團은 28일 仁川공설운동장서 벌어진 대회12일째경기에서 3회말 7번金武寬이 중전안타로 돌파구를 열고 보내기번트로 2進, 9번 鄭求善의 좌전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린후 1번丁震鎬의 2점호머로 3－0의 리드를 잡고 4회말 1안타 2포볼로 2점, 5회말 집중4안타로 3점을추가, 승리를 결정지었다。

◇제12일전적
제일은 (6패) 000 002 110 ‖4
경리단 (5승1패) 008 230 03× ‖11
▲홈런＝丁震鎬(3회·2점·경리단) 金宇烈(6회) 楊世鍾(8회·이상제일)
농협 (2승4패) 020 200 000 ‖4
포철 (5패) 000 010 000 ‖1

大京商, 馬山高 꺾어
中高농구 後半서 대역전 65－62

제11회 추계중·고농구연맹전 8일째경기가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려 大京商이 馬山高를 65－62로 꺾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大京은 전반서 29－40으로 크게 뒤졌으나 후반서 밀어붙여 역전승했다。

◇제8일전적
▲고등부준준결승
대경상 65 (36－22 / 29－40) 62 마산고
▲남중부준준결승
광신 41－33 마산
명지 45－34 소년의집
▲여중부
덕성 34－33 선일
숭의 42－35 숙명

青少年축구팀 出國

오는 10월3일 濠洲서 개막되는 제3회 세계 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에출전할 한국 청소년대표팀이 29일하오 장도에 오른다。
한국팀은 28일상오 축구협회 회의실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한국선수단
▲임원＝孫壽榮(단장) 朴鍾鐵(감독) 吳瑾英(코치)
▲선수＝崔仁榮 李桂峻(이상GK) 金鍾善 白致守 金光雲 金聖基 金萬吉 尹龍昇 崔鍾學(이상FB) 金三洙 金浩 康得壽(이상HB) 金錫坦 崔淳鎬 李敎男 郭星浩 崔哲熙 康龍國(이상FW)

"나는 尹甲富 죽이지 않았다"

高女人첫公判 알리바이 내세워 陳述번복
"警察 고문못이겨 허위自白"주장
尹甲富 고문辯護士가 변론 맡아

수사단계에서 숱한화제와 미스터리가 얽혔던 서울龍山區元曉路 여갑부 尹景花씨(72) 일가족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첫공판이 28일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심문과 변호인측반대심문을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高피고인은 간여 서울지검형사3부 鄭相明검사의 직접심문이 시작되자마자 『억울하다。 경찰에서 고문에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 방청석을 긴장시켰다。
高피고인은 이날 사건당일 자신의 행적을 진술하면서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내세웠다。
高피고인은 尹씨등이 살해당한 지난7월22일 ▲하오1시30분 乙支路3街 진고개식당에서 尹씨등 가족5명과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尹씨의 승용차로 貞陵집에 함께와 헤어진후 ▲하오5시30분 다시 외출、鍾山洞과 黑石洞에서 보험료를 수금하고 ▲하오 8시께 小公洞지하상가와 淸進洞입구에서 아이들의 옷가지를 샀으며 ▲하오8시30분께 曹溪寺에 가 무진장스님을 만났고 법당에서 열리고있는 청년회수요법회에서 청년회 간부들을 만났다고 말하는등 알리바이를 주장함으로써 경찰및 검찰이 高씨가 범행했을 것으로 보는 하오9시30분에서 10시20분 사이 「시간대」를 부인해 버렸다。
특히 高피고인은 尹씨집에 가기전 하오8시께 新世界백화점앞 南大門상가 화장실에서 옷을갈아 입었다는 검찰및 경찰의주장을 정면으로부인했다。
그러나 高피고인은 검찰이 『22일밤 조계사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실을 부인하고있으며 특히 조계사 청년회회장인 피고인의 동생 高鍾旭씨조차 청년회법회현장에서 만나지못했다고 말한것은 피고인의주장이 허위임을입증한다』고 추궁하자 답변을못했고 또 사건당일밤 평소 아들이 사달라고 조르던 티셔츠를 샀는데도 다음날 아들이 아버지와함께 전남順天에 내려갈때 입히지않았을뿐만아니라 아들이 順天에서 돌아와 다시 티셔츠를 사달라고 조르는데도『돈이없다』고 거절했다가 7월28일에 사준것으로보아 22일밤 티셔츠를샀다는것은 거짓말이며 28일에 산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역시 답변을하지못했다。
高피고인은 또『자신이 검찰의 3·4차심문때부터 범행을 부인하자 龍山경찰서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李모、千모형사들이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와 「죽고싶으냐」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高피고인은 특히 경찰이범행당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패물은 다음날인8월5일 경찰이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할때 가장 가까운친척이 동행하자고해 따라들어가 안방캐비닛에 있던것을 경찰이보는앞에서 『분실 염려가 있으니 내가 보관하겠다』며 가져온것인데도 경찰이 증거가 없자 범행때 가져간것처럼날조한것이며 당시수사형사들이 패물과함께있던우황청심환을 나눠갖기도했다고진술했다。
高피고인은 또경찰이 현장검증전예행연습까지시켰으며『기자들이 질문하면 아무말도하지말라고 위협까지했다』고 말하기도했다。
이날공판에는 高씨의 남편 尹永培씨와 장녀 美瓔양(18)등 가족、친척、친지등 1백여명이방청했고 高씨가 당한 고문방법을 상세히 진술할때는 방청석 이곳저곳에서 울음 소리가 터지기도했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범행동기나 방법、범행시의 상황등을 일체 심문하지않은채 사건당일의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변호인측은 이와대조적으로 캐물었다。

◇첫공판에 나온 高피고인。 사건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새삼 강조하면서 고문에 못이겨 범행을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했다。

택시운전사 被殺
弘濟洞서 택시發見 지문채취

26일 하오4시40분께 서울江南區牛眠洞132앞良才川상류 개울가에서 서울3바3272호 개인택시운전사 白雲學씨(39·서울銅雀區舍堂洞180의36)가 예리한 흉기로 오른쪽 잔등을 찔리고 목이 찔린채 엎드려져 숨져있는 것을 고기잡이왔던 朴明年씨(37·운전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白씨의 노란색 브리사택시는 27일 상오8시5분께 서울西大門區弘濟3洞245의15 仁旺국교 뒷담길에서 이동네 유성희군(17·明知高3년)에 의해 발견됐다。
택시는 발견당시 문이 잠긴채 미터기는 공차표시였고 白씨가 차고나갔던 시티즌손목시계가 오른쪽 뒷좌석밑에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택시속에서 국방색 플래시1개와 金갑등을 적은 찢어진 메모지한장을 찾아내고 이 메모지가 범인들의것이 아닌가보고 필적감정을의뢰했다。

운전사 失踪
택시 길가에 버려둔채

強盜소행인듯

【大邱＝聯】택시운전사가 산속도로변에 택시를버려둔채 실종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
27일상오 6시40분께 大邱市東區校底2洞 속칭 연마골 앞도로에서 대광택시 소속대구1바7953호 브리사택시가 버려지고 운전사 金재만씨(32·大邱市南區大明洞1635)가 행방불명돼 있는 것을 길을 지나던 校底2洞주민 金정대씨(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자 金씨에 따르면 이날아침 길을 지나다 방치된 택시가 있어 가까이 가보니 앞·뒷문이 모두 열려있고 시동엔진열쇠가 그대로 꽂힌채 버려져 있더라는것。

"20代청년 電話부탁 받았다"
電話건 포장마차집女人 신고
長髮에 노란T셔츠 차림
女大生피살사건

상경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8일 장미아파트 라이프종합상가 앞길 건너편의 포장마차 주인 박지현씨(45·여·경기城南市)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사건당일을 전후해서 20대청년으로부터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는 신고에따라 이청년이 朴양을 불러낸 전화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 수배했다。
박씨에의하면날짜는분명치않으나 19일을전후한 밤10시께 25세가량의 키가크고덩치가 노란T셔츠차림의 이청년이 소주반병과안주를 시킨뒤 『대신 전화를걸어달라』고 부탁해『바빠서 할수없다』고 거절하자 담배갑을 놔둔채 나갔다가5분쯤 뒤 되돌아와 술을황급히 마저마시고 나가버렸다는것。
이에따라 경찰은 박씨의 진술과 인상이 비슷한 張모군(21·K대3년)을 대질시키기도 했다。

流星의 賦
<19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明暗 ⑭

그 이튿날 홍계남은 사정(司正) 오준을 찾아가서
『전일의 저의 소행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천박한 견식의 소치였읍니다。 비로소 사정 나으리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하는 사과의 말을 올렸다。
오준은 홍계남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교자를 권하여 앉으라고 하곤。
『홍사용이 한 일은 정당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은 사정(私情)에 치우친 일이었는데 사과를 하다니 웬말이오』
『그 사정 깊은 아량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계남의 말은 어디까지나 공손했다。
『그렇게 말아주니 다행이군』
하고 오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軍)에 있어선 기강이 제일이오。 그걸 낸들 모를 까닭이 있겠소。 그러나 기강은 상(上)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선 양곡(糧穀)의 체불(滯拂)이 한 두번이 아니오。 상시하솔(上侍下率)하고 있는 군졸들에게 제 때 양곡을 주지 못하면서, 말하자면 상부(上部)에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하게 하졸들의 기강을 운운할 수 있겠소。 그래서 나는 우리 군졸들을 기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정으로 친하려고 한거요。 정으로 맺어져 있으면 일조에 기강을 돌이킬 수 있지만 정은 없이 기강만으로 다스려 놓으면 아주 어려울 때에 그 기강이 허물어지고 마는거요。 그래서 나는 부하들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거요。 알았소?』
『그러한 깊은 뜻을 알았기에 사과를 드리는겁니다』
『그럼 잘 됐어。 홍사용이 그렇게 나오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겠소。 실은 나는 홍사용을 변방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소、그래서』
하고 오준은 문갑에서 쓰다 만 문서를 꺼내며
『그래서 이렇게 회장(回狀)을 쓰고 있던 참이오。 홍사용의 뒤엔 큰 연줄이 있어、수월하게 내 마음대로 되진않을 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어이 그렇게 할 참이었소。 홍사용 하나 때문에 정으로 겨우 뭉쳐놓고 있는 우리의 부서에 틈서리가 생길 염려가 있어서 말이오。 당신이 그릇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당신이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날 것이니 심히 두려웠던 것이오。 그러나 홍사용의 말을 이제 들으니 그럴것까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소』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찢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도 없소。 앞으론 군졸들과 인화(人和)를 취하도록 각별 노력하시오』
하는 오준의 준절한 말이 있었다。
정으로 맺어져 있으면 일국에 기강을 돌이킬수 있지만 정이없는 기강은 어떤 경우에 처하기만 하면 찰나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오준 사정의 이말은 두고두고 홍계남에게 교훈이 되었다。 후일 그가 명장(名將)이란 소릴 듣게된 까닭도 그 교훈 덕택인지 모른다。
오사정 앞에서 물러난 홍계남은 자기에게 속한 군졸들을 모아 그날밤 회식(會食)을 할참으로 계획을 세웠다。

IPU代表團귀국

쿠바의아바나에서 열린 IPU(국제의회연맹) 제68차 총회에 참석했던 蔡汶植국회부의장(단장)등 한국대표단일행은 28일 하오7시15분 KAL편으로 귀국했다。

傳統民俗品 바자
東洋民俗연구원

동양민속연구원(원장 성봉민)은 바자를 갖는다。 바자에나올 민속품은 한복·古家具·매듭·박공예등。 문의 전화㉘8077。

文盲者 한글공부
서울Y 학생모집

서울YWCA는 한글을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오 2~4시사이에 한글을 가르치기위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연령제한은 없으며 28~10월15일사이에 서울Y 근로여성회관(㉘8353)으로 신청하면된다。

卓球 상비군선발
金浣등 先頭에

탁구국가대표상비군 선발전이 28일 기흥대표팀훈련원에서 벌어져 남자 A조리그에서 金浣(제일합섬)이 11승1패로 단독선두를 달리고있다。 동B조에서는 權五澤(한성대)이 9전전승、金琦澤(제일합섬)이 10승1패、盧潤寬(국정교과서)이 8승1패로 상위에 올라있다。 여자B조의 李壽子(제일모직)는 이날까지 10연승을 기록、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朴末粉(근화여고)은 9전전승으로 그뒤를 따르고있다。

獨立紀念館 건립추진
서울近郊 20만평에 10年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기념관(가칭) 건립계획이 10년계획으로 추진된다。
李振羲문화방송사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해방36년이지나 근대국가로 성장한 5천년역사의 대한민국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상징하는독립기념관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우리 민족의 끈질기고 강인한 독립정신과 자주의지를 표상하고 후손들의 참된 국가관교육의 산훈련장으로 활용할 대규모 독립기념관 건립을 MBC가주도하겠다』고 밝혔다。
MBC개국2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독립기념관은 교통이편리한 서울市근교 20만평의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제공받아 연건평 1만평규모로 총3백억원을 들여 10년계획으로 세워진다。
李사장은『10월중으로 독립운동、민족문화사업 관련각 기관과 정계·학계·사회단체등 각계각층 인사들로『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MBC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범국민적인 기금모금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된장국 胃癌예방에 特效
大豆단백질 抗癌·저항력높여
위궤양·심장병豫防에도 효과

日 암센터硏究결과

된장국이 위암은 물론 위궤양、심장병、간경변등을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일본국립癌센터연구소 히라야마(平山雄) 역학부장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히라야마씨는 지난65년부터 전국 6개府縣 29개보건소에서 40세이상 남녀26만5천명을 조사한결과 ▲매일된장국을 먹는 사람은 위암사망률이 10만명중 72명에 그친데 반해 ▲때때로 먹는 사람은 2백10명 ▲거의먹지않는 사람은 2백40명 ▲전혀먹지않는 사람은 2백56명으로된장국을 많이먹는 사람일수록 위암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조사결과 여성에서도 10만명을 대상으로했을때 된장국을 먹는사람이 78명、전혀먹지않는 사람은 1백14명이나 위암으로 죽었다。
히라야마씨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대두단백질이 抗癌작용을하며 ▲양질의 영양源으로서 인체에 저항력을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또 이조사에서 된장국은 虛血性심장병、간경변예방에 효과가있었다고밝혔다。【東京＝宋孝彬특파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5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킹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OME JEWELLERY 쏘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한국일보사 광고부
☎ : 533-2361

협회 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아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신입생 환영회

토론토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파티를 마련했읍니다.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10일 7PM～1AM

장　소 : PARTU CAFE. 310 BLOOR ST. W.

회　비 : 신입생 무료, 재학생5달러

연락처 : 천명호(298-0432) 표봉현(749-3040)

토론토 대학 한국학생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도나스 가게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 구함
☎ 881-2019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주말 파타임 헬퍼구함 :
마캄과 로렌스
☎ : 438-152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구함
미세스 김
☎ : 755-1746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244-5248, MRS. THOMAIDIS

2개월 동안 일본정원사와 잔디 깍기등 정원 손질
할수 있는 헬퍼구함. 영어 또는 일본어로 문의바람
☎ 298-3316

베커 헬퍼구함 : 남자20세~40세정도 오전5시부터, 여자
캐쉬어 오전8시~오후4시
☎ : 481-3677(오후1시~4시사이) 미스타 박

공장에서 생산부분에 경험있는 분 구함 :
직접 내방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QEW & 427 AREA)

도나스 가게에서 5일간 밤일하실 풀타임
일할 여자분 구함(밤11시~아침9시)
☎ : 284-9325 스카보로지역

매매및 양도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다운타운 열안에 있는 FAST FOOD STORE임
연 순이익 $35000, 부부가 하기에 아주 이상적임
주6일 영업, Asking $33000중 모게지 $7500가능함
☎ 536-0463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매매 : 성업중인 드라이크리닝
PICK-UP가게 매매
☎ : 690-3256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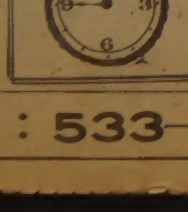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 & 두채의 아파트 매매 : 좋은수입과 두개의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기회
☎ 763-6287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시간은 금이다.



본 사 광고국 : 533-2361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돌게지 : 13½% (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5-743-3152 MR. 유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 ASKING $10000,
MACHINE과외수입$800. 2층 살림집있음
☎ : 1-387-3983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메인스트릿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로타리오 머신+우체국 주인이 은퇴하므로 팔고자 함. 엘스미어 로드(토론토)
☎ : 889-6555 Mr. LISS(브로커)
오후6시 이후 전화요망 영어로 문의할 것.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인 벤 토 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지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페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남파·김

GRAND OPENING SPECIALS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있는 저희 KAWAI KEYBOARD 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 하나의 KEY BOARD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UPRIGHT PIANO

KL-702

US-50

KS-3F

*전 자 올 갠

E-550

E-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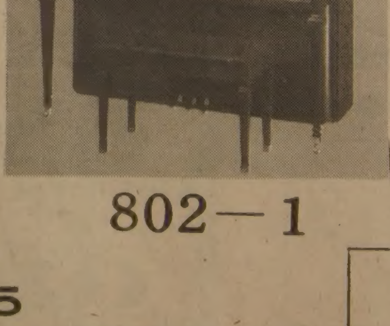
REG.
$ 2,995
SPEC.
$ 2,495
↵

*GRAND PIANO

GS-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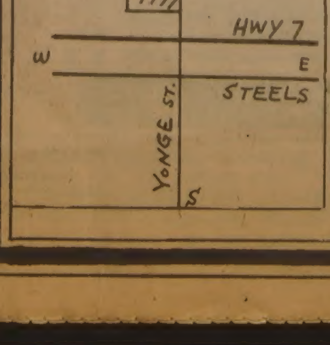
↑ KG-1C
REG. $ 8,995
SPEC. $ 7,645

(OPEN WALNUT) CE-7 ↑
REG. $ 3,125
SPEC. $ 2,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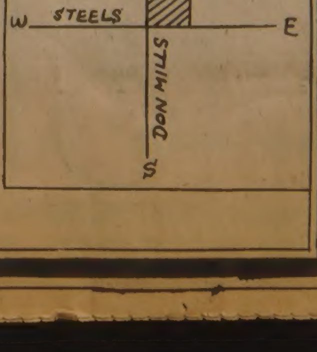


802—1

Hillcrest Mall



전화 : 883—9407, 881—8211
대표 : 윤 호 섭
세일즈 · 매니저 ALLEN DUMA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